



# 2014 아시안게임은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에서

아시아 젊은이들이여, 인천하늘 아래서 하나 되자.

야구, 축구 등 근대 스포츠 종목을 처음 받아들인 인천,

월드컵 신화가 쓰여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인천에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의 꿈을 키워갑니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등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화가 활활 타오르길 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Good Morning

#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1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인천대교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게 될 인천대교가 영국 언론에 의해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10 wonders of the construction world)'로 뽑혔다.

130년 발간 역사를 가진 영국의 건설 전문주간지 <컨스트럭션 뉴스>는 최근호 특집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전 세계 건설프로젝트 가운데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10개를 선정했다.

그 중의 하나로 지난 6월 착공해 2009년 10월 완공 예정인 왕복 6차선 길이 12.3km인 인천대교가 선정되었다. 총사업비 1조2,70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대교는 주탑에서 비스듬히 내려 드리운 케이블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斜張橋) 다리로, 완공되면 서해대교(7.3km)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된다.

## 그밖에 경이로운 10대 건설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고 180층 빌딩 버즈 두바이(Burj Dubai) ▲미국 그랜드캐니언의 유리교량 스카이워크(Skywalk)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들어설 126층짜리 프리덤 타워(Freedom Tower) ▲50메가와트(㎿)의 태양열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호주의 솔라타워(Solar Tower) ▲중국 베이징의 2008년 올림픽 주경기장 ▲뒤틀리고 꼬인 독특한 모양의 중국 CCTV 타워 ▲시속 228km로 달릴 수 있는 독일 뮌헨의 자기부상열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만드는 길이 11.5km짜리 스마트 터널(SMART Tunnel) ▲9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 굿모닝인천

2006.1 (통권 145호)



표지설명 \_ 계양산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꿈꾼다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1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뉴스포커스 | 인천대교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

04 출발! 2006년 | 병술년 개(犬)성시대를 연다

08 버스타고 겨울바다 즐기기 | 겨울바다 여백에 '나'를 채운다

12 겨울방학 OUTDOOR | 얼음낚시 & 썰매

16 문화마을 순례 | 30년 이어온 六絃의 세월줄 리어석 기타오케스트라

18 이달의 공연 | 2006 인천 신년음악회 외

22 2006년 새해 시정설계 | 세계로 비상하는 동북아의 허브도시

24 Good Incheon Good Life | 2006년 달라지는 시정

28 굿인천 굿뉴스 | 자전거 타고 멀리 여행가요 외

32 경제자유구역 소식 | 경제자유구역청 전환반대 105만 서명부 전달 외

33 의정소식 | 2006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안 수정가결 외

34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테이블 매너(Table Manner) |

35 VIVA 인천 | 그대들은 희망을 쏘았다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매콤한 국물 "어~, 시원~하다" 인천표 해물전골

42 김치 찰락

43 굿모닝時評 | 나로부터 시작하자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 부평온천을 매워 버리다

46 참살이 동의보감 | 자연이 준 좋은 선물, 보약

47 Youthzine | 주한미대사관 청소년웹진 MOO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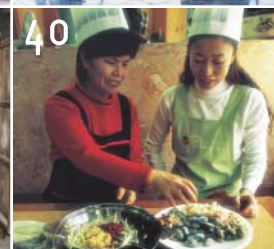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출렁거리는 푸른 수평선 흥유정

52 아심만만 태데크 | 적립식 편드

53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새해소망'

55 Info Box | 한국전력공사 관할구역이 변경됩니다 외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寓 | 만사(萬事)가 형통하시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개는 인간과 역사를 함께 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충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특히 현대에 와서 애견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심리적, 육체적인 건강의 동반자로 인간과 교감하는 가족구성원이 되고 있다.

글·김미희(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자유사진가)



# 병술년 개(犬)성시대를 연다



애니랜드의 흰개들. 예로부터 흰 개는 신령스러운 능력을 가진 영험한 동물로 여겼다.



월미도 애견카페 '물란'

## 문 열면 바다세상 문 닫으면 애견세상

멍멍! 월월! 어서옵쇼~ 문에 사람 그림자라도 비치면 먼저 가서 손님을 맞겠다고 앞 다투어 달려오는 녀석들이 있다. 월미도 애견카페 '물란'에 가면 주인보다 애견들이 손님을 더 반긴다. 내 애견의 털이 날릴까봐 혹은 개가 짖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카페가기가 걱정스러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이곳에 와서 따뜻한 차 한잔에 겨울바다도 감상하고 강아지를 맘껏 안아볼 수도 있다. 애견 없이도 대환영이다. 물란은 애견들도 일품이지만 차 맛도 일품인 곳이다. 특히 부드러운 커피에 몽블랑 같은 크림을 살짝 얹은 카페모카는 '물란'의 자랑 메뉴다.

수년간 애견 브리더(애견 전문 사육 및 관리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도그쇼에서 20여 차례 수상을 한 남편의 도움으로 김영애 씨는 2003년 월미도에 애견카페를 열었다. 그런 만큼 20여 마리의 다양한 애견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애견 엄마들의 마음도 쫄쫄 얼어붙었는지 최근에는 애견을 카페 앞에 버리고 가는 일이 잦다고 한다. 김사장의 새해 바람은 더 이상 애견들이 버림받아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문의 \_ 애견카페 '물란' (773-6383)  
이용시간 \_ 1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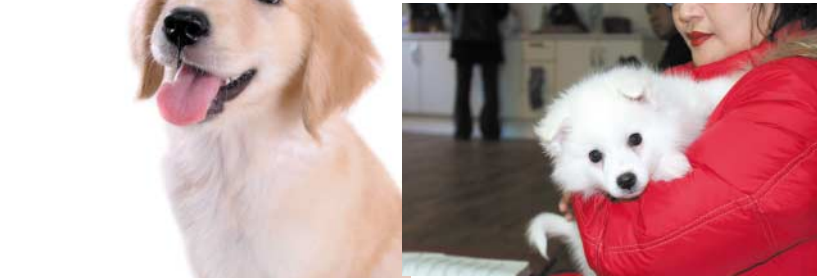
## 말괄량이 길들이기

몇 해 전 애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에도 15개나 되는 애견미용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 춘·추 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거품이 빠지면서 두 개 학원이 평정을 했다. 2003년 1월에 문을 연 주안애견미용학원(437-9990, [www.juanpetschool.co.kr](http://www.juanpetschool.co.kr))은 현재 애견 코디네이터(트리머)가 되기 위해 미용을 배우는 학생들로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10대에서 50대까지, 학생에서 주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꼬박 5~6시간을 투자하며 전문 미용사가 되기 위해 열심이다. 윤수정 원장은 “내 강아지 내가 미용해주고 싶어서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업계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 전망이 밝거든요.”라며 학원 수료 후에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자신한다.

손등의 술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쪽 일을 하기 어렵다는 윤원장은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강의와 취업도 알선할 만큼 마음 따뜻한 애견애호가다. 때문에 애견에게 상처를 안 내는 것을 애견미용의 첫 번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부평에 위치한 ‘월드펫 아카데미’는 지난해 5월 문을 열고 애견미용과 수의간호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512-5050, [www.petschool95.co.kr](http://www.petschool95.co.kr))



주안애견미용학원의 실습시간



4월중 오픈할 ‘애니랜드’ 전경

##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 이상 애견이 놀이의 대상만은 아니다. 개인 소득증가와 5일 근무제, 핵가족화, 독신인구가 증가하면서 애견을 키우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애완동물이 정서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반려(伴侶)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휴가철이 되면 애견을 두고 떠나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걱정이 앞설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 줄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애견테마파크 ‘애니랜드(대표 김선기)’가 우리시에 생긴다. 강화군 선원면 1만5천평 부지에 300억원을 들여 애견용품점, 애견병원, 애견호텔, 애견카페, 경견장, 애견상가, 훈련장, 애견납골당·화장터 등이 설치된다. 애견이 태어나 무덤으로 가기까지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연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애견 동반 삼림욕장과 애견펜션도 마련돼 애견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어 강화군의 이색 관광콘텐츠로 주목을 끈다.

‘애니랜드’는 올 4월중 오픈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각종 도그쇼를 이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애견 애호가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애견 동호회 모임, 어린이들의 학습과 소풍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의 \_ 애니랜드 (933-9787~8)

## 올 봄엔 꽃무늬 먼 티셔츠가 유행

“현재는 니트와 패딩이 유행이고 올 봄엔 꽃무늬 나염한 먼 티셔츠가 유행할거예요.” 2006년 봄, 애견 패션업계의 유행패턴이다. 경제가 얼어붙고 애견산업 역시 찬 바람을 피할 길 없지만 남구미추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추&도그’는 예외다.

이곳은 봄을 맞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 15명의 남구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애견들에게 입혀줄 봄옷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린다. 2002년 2월 문을 열어 현재 월평균 2,000여벌의 애견옷을 제작하며 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애견 덕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주문이 늘면서 애견옷을 만드는 회원들의 마음에도 사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있다. 회원들은 내 아이의 옷을 짓듯 정성스럽게 옷을 재단하고 꿰맨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견옷은 대부분 (주)한국사로 도그나라와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납품되며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직거래를 할 경우 고급 원단의 아기자기한 애견옷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3년간 경력을 쌓은 지영숙(44)씨는 지난해 9월 동구 금곡동에 ‘미추애견옷’이라는 상호로 자기만의 사업장을 꾸리기도 했다.

한편 우리시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881-6060, [www.namgucenter.or.kr](http://www.namgucenter.or.kr))’는 애견옷 제작사(2개월) 과정을 마련해 창업과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내 강아지 설빔하나 마련해볼까? ☀

문의 \_ 남구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미추&도그 (888-0231~2)



애견옷을 제작 중인 ‘미추&도그’ 직원들

## 국내 최초의 고교 애견미용학과

애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견미용분야가 이색 직종,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예화여고는 이런 트렌드에 맞게 2003년 고등학교로는 국내 처음으로 애견미용학과를 개설했다. 현재는 애견관리과로 명칭을 바꾸어 폭넓은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수가 늘고 있다. 애견 전문 트리머, 브리더 등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졸업 후에는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동물병원의 진료보조사, 전문 애완동물 관리사 그리고 미용사 등으로 취업도 가능하다.

문의 \_ 예화여자고등학교 (574-3351~3, [www.yewha.hs.kr](http://www.yewha.hs.kr))





# 겨울바다 여백에 ‘나’를 채운다

엄동설한의 겨울바다는 쓸쓸한 고독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냉혹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입김마저 얼려버리는 맵찬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다다르고 싶어 한다. 온몸으로 칼바람 맞다 보면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깨달음을 그곳에서 얻는다. 그들이 겨울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따뜻함과 희망이다. 그 바다를 승용차 핸들 버리고 생생한 삶의 공간인 버스에 몸을 싣고 가보자. 차창을 통해 보이는 겨울풍경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글·유동현(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현(자유사진가)



## 선재도 & 영흥도

인천시내에서 가장 쉽게 건너 갈 수 있는 섬은 선재도와 영흥도이다. 섬이지만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편하게 육로로 다녀올 수 있다. 물과 연결되었지만 아직도 섬 고유의 풍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겨울바다의 분위기에 푹 젖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도심의 번잡함은 시화방조제를 달리는 순간 훌훌 던져버릴 수 있다. 바다를 시원스럽게 가르는 11km의 방조제길 드라이브는 승용차보다 차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버스가 제격이다. 방조제를 달리며 하루하루 모습이 달라지는 송도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재대교를 건너면 봉분처럼 생긴 작은 섬들이 물위에 떠 있다. 선재도에서 겨울바다를 느끼려면 다리를 건너자마자 버스에서 내린다. ‘바다향기’라는 횃집 앞마당을 통해 해변으로 나갈 수 있고 물때가 맞으면 ‘모세의 기적’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300m 가량 갈라진 모랫길을 따라 무인도 목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선재도를 거친 버스는 영흥대교를 건너면 바로 종점이다. 영흥도 바닷가를 가려면 여기서 농어촌공영버스(마을버스)

로 갈아탄다. 섬버스는 시내에서 온 버스시간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공백시간은 별로 없다. 이곳에서 각각 십리포해변과 장경리해변 방면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면 된다.

십리포해변에 서면 팔미도, 무의도, 실미도의 자태가 한눈에 들어오고 인천항에 들어가려고 줄지어 서있는 외항선의 이채로운 모습도 보인다. 십리포가 유명한 것은 무엇보다 해변 뒤편에 사열하듯 서있는 350여 그루의 소사나무 때문이다. 제멋대로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나무들은 퍼포먼스를 하는 군상들처럼 기이하게 보인다.

솔밭으로 둘러싸인 장경리해변은 삼태기 마냥 아담한 품을 가진 바다이다. 얼마전부터 바닷가 전망 좋은 곳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숙박하며 하루종일 겨울바다 품에 푹 안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790번 시내버스〉 용현동(구 터미널 건너편 CJ 앞)~웅진군청-제물포역-주안사거리-석바위-시청후문-만수동(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 BYC 앞)-남동구청-소래포구-시화방조제-선재도-영흥도  
첫차 오전 6시10분 막차 오후 8시30분(약시간 간격 배차) / 영흥도 출발 막차 오후 8시30분 / 소요시간 편도 1시간30분 / 요금 2,000원  
문의 \_ 신백승여행사 영흥터미널 (886-4747)





## 강화도

유적지탐방, 등산, 겨울바다 산책 등 강화도 여행은 사시 사철 테마가 다양하다. 섬 치고는 땅이 넓어 버스 타고 구석 구석 즐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섬 내에는 싹틔죽처럼 버스노선이 퍼져 있어 웬만한 관광지는 다 돌아 볼 수 있다.

강화여행의 키스테이션은 강화터미널이다. 인천터미널, 부평 등에서 좌석버스나 직행버스를 타고 일단 강화터미널에 도착해 군내버스(마을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군내버스 노선이나 시간표 등 운행정보는 터미널 안에 부착돼 있고 강화터미널 창구에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

동막해변은 강화터미널에서 온수리행 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다. 날씨가 추워 갯벌체험은 할 수 없지만 해변 끄트머리에 있는 분오리돈대에 오르면 하루에 두 번 시커먼 제 속살을 스스럼없이 보여주는 세계 5대 갯벌의 광활함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바다는 그 어느 계절보다 일몰의 색이 진하고 장엄하다. 고개 넘어 장화리에 있는 카페에 들러 진홍빛 너울이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향 짙은 커피 한잔 마시면 이보다 큰 '호사'는 없을 듯하다.

광성보나 전등사 같은 강화도의 유명 관광지는 패키지처럼 묶어놓은 강화관광지순환버스를 이용하면 한결 편하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이 버스의 동선은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알차게 탐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골장터 분위기 물씬 풍기는 강화읍내에서 잠시 머물 요량이면 고려궁지, 강화성공회성당만 둘러봐도 얘기 거리는 풍성하다.

### 〈좌석버스〉

인천터미널-강화서문(700번), 계산역-마니산(701번), 계산역-강화터미널(120번)

문의 \_ 강인여객 (578-1738)

### 〈직행버스〉

부평역-강화터미널(90번), 인천터미널-강화터미널(70번)

### 〈강화관광지순환버스〉

강화터미널-광성보-덕진진-초지진-전등사-온수리-강화터미널  
첫차 오전 6시20분 막차 오후 7시45분 / 하루 9차례 운행(1시간 이상 운행간격)

문의 \_ 강화터미널 (934-9811)

## 용유도

너무 쉽게 닿을 수 있어 가끔 육지로 착각하는 용유도는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어엿한 섬이다. 이제는 삼쌍둥이처럼 영종도와 한 몸이 된 용유도는 오래전부터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보배 같은 섬이다. 인천역이나 동인천역 등 도심에서 306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배를 타지 않고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 한달음에 섬으로 갈 수 있다.

공항고속도로를 벗어난 버스는 용유도 남서해안을 훑듯이 달린다. 무의도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 섬 잠진도 선착장 입구를 거쳐 선녀바위해변으로 달린다. 선녀바위해변은 용유도에 숨어 있는 진주 같은 바다이다. 올망졸망한 기암괴석들이 전시돼 있는 예쁜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한가롭게 겨울바다와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을왕리해변은 주변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라이브 카

페들이 자리 잡고 있어 겨울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버스는 여기가 종점이지만 겨울바다의 진수를 맛보려면 고개 하나를 넘어야 한다. 왕산해변은 주변에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 오히려 겨울의 쓸쓸함에 푹 젖어 하늘냄새, 바다냄새를 맘껏 들이킬 수 있는 바닷가이다. 왕산해변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낙조는 용유8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환상적이다. ☀

### 〈306번 버스〉

인천역-중구청-신평시장-동인천-송현시장-솔빛주공-북인천C-공항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잠진도선착장(무의도)입구-선녀바위해변입구-을왕리해변

첫차 오전 5시, 막차 오후 9시(을왕리 출발 막차 오후 10시30분 / 15분간격 배차 / 편도소요시간 약 1시간) / 요금 3,500원

문의 \_ 강인여객 (578-1738)



- 1 꿈꾸어 붙은 동막해변
- 2 강화터미널
- 3·4 을왕리 해변
- 5 선녀바위 해변
- 6 한적한 바다, 왕산해변



# 얼음나라 동장군 나랑 한번 겨뤄볼래?

아이들은 신나고 부모들은 난감하다는 겨울방학이다.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밖으로 나가자고 보채는 아이들, 부모들 입장에서 귀찮을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과감하게 추위와 맞설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자. 아이들과 얼음낚시도 하고 썰매도 탈 수 있는 곳은 어떨까? 글·정경애(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자유사진가)



인천대공원

## 전통 썰매타고 추억 속으로

추운 줄도, 손이 어는 줄도 모르고 얼음판에서 썰매를 지치노라면 어른들은 어느새 추억 한 자락을 부여잡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짜릿한 감동이 된다.

계양구 동양동. 군데군데 누워있는 짚단이 한가로워 보이는 들판 옆으로 수로가 흐른다. 한강에서 이어지는 서부간선 수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황금 들판의 젖줄로 농부들의 '생명수'였다면 겨울에는 개구쟁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놀이 천국'이 된다.

12월 초부터 맹위를 떨친 추위 덕분에 어느새 얼음이 팡팡 언 수로가 금빛 햇살을 받으며 길게 드러누워 있다. 외발썰매, 두발썰매. 만든 이의 숨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썰매에 몸을 싣고 빙판을 달리는 아이들의 표정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허연 입김을 내 뿜으며 앞에서 끌어주는 언니나 앓은뱅이 썰매 위에 올라앉은 동생이 내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수정 빛 은반을 타고 데구루루 구른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이슬방울처럼 은반위에 굴러 떨어지노라면 어느새 빙판 위에는 옥구슬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얼기설기 엮은 듯한 나무판자 밑에 굵은 철사 두 줄을 댄 것이 고작이지만 앓은뱅이 썰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신비의 수레다. 비탈길이 있어야만 제 맛을 내는 눈썰매와는 달리 스스로 동력을 내야 하는 얼음 썰매는 양 손의 지팡이를 도구 삼아 얼음을 지치는 맛이 그만이다. 또 그 기교도 다양하다. 좌우 회전은 물론 180도 턴까지 선보이면 여기저기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얼어붙은 손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동장군의 맹추위를 삼킨 지 이미 오래. 추워서 오



히려 더 즐거운 얼음 썰매는 그래서 매혹적이다. 마음은 좀 더 빨리, 더욱 신나게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는 무아지경의 연속이다.

몇 해전 인천대공원에서는 인공호수가 뚝뚝 얼 때면 얼음썰매장을 만들고 앓은뱅이 썰매 150대를 1시간씩 무료로 빌려주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족끼리 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뜻밖의 추억의 놀이를 접하고는 마냥 즐거워했다. 인공호수의 수심이 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얼음이 10cm 이상 얼 때만 문을 열었다. 하지만 2년 연속 파듯한 겨울이 지속되는 바람에 얼음썰매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올해 역시 인천대공원 얼음썰매장이 동심으로 가득 찰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날씨가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인천대공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 동심의 세계로 끌어주는 마법의 수레

강화읍에서 온수리를 지나 전등사 앞을 지나쳐 3km 정도 가면 닿게 되는 분오리저수지. 저수지이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낚시터로 개발되지 않아 알음알음 찾아오는 낚시꾼들이 있을 뿐이다. 강태공들의 발길이 드문 한 겨울의 낚시터. 5만5천 평에 이르는 너른 얼음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 위를 눈썰매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져 달린다. 주인장이 숨씨를 부려 만든 썰매를 빌리는 값은 3천원. 아이들은 집에서 만든 썰매를 가져다 얼음을 지치고 여행객은 주머니를 털어 동심 속에 합류한다.

전등사 입구에는 또다른 썰매장이 지난달 10일 문을 열었다. 이름하여 '신나는 추억의 썰매' (934-6726, 010-3170-1272).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끌어와 팡팡 얼려서 썰매장



을 만든 곳이다. 2천여 평에 이르는 썰매장 위에는 동네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만국기가 휘날린다. 썰매장 한 켠에서는 주인장 김성남 씨가 솜씨를 부려 만든 400여대의 썰매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골 인심 후한 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나 보다. 썰매장은 입장료도 따로 없단다. 스케이트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제집 앞마당인 냥 스케이트를 타면 되고 썰매가 없는 사람은 3천원에 빌려 타고 얼음 나라로 들어 갈 수 있다. 도회지처럼 한 번 빌리면 1시간, 2시간 같은 시간 제약도 없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놀다 지칠 때까지 맘껏 탈 수 있다. 3월 초까지는 얼음이 팡팡 얼어서 걱정없거니와 혹여 날씨가 아주 따뜻해 얼음이 살짝 녹더라도 눈에 물을 대서 만든 썰매장이라 깊지 않아 안심이다.

영종도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논 역시 겨울이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 추수가 끝난 논이 퐁퐁 얼어붙어 광활하게 펼쳐진다. 공항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가용의 속도에 견줄까마는 양손에 쥔 지팡이에 힘을 실으면 썰매는 어느새 썰썰 내달리는 얼음판의 '벤츠'가 된다.

## 아빠는 낚시, 나는 썰매 타기

퐁퐁 언 방죽 너머에 나가 썰매를 지치노라면 해가는 줄도 몰랐다.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아랫목에 녹이며 손을 비벼대던 기억은 어느새 추억이 돼 버렸다. 세월은 변했어도 입에서 허연 입김을 뿜어대며 얼음지치는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매양 한가지다. 강화에는 저수지가 많아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럿 있다. 이미 얼음이 팡팡 얼어버린 저수지에 구멍을 뚫고 아빠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사이 아이들과 엄마는 얼음지치기



를 할 수 있다. 얼음 썰매를 타도 좋고 그림에서나 보았던 전통 팽이를 돌려보는 맛도 괜찮다.

강화읍에서 외포리 가는 길에 닿게 되는 내가저수지는 근 30만평에 이른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저수지는 1월이면 얼음낚시터로 변신한다. 이때부터 저수지는 물이 아닌 거대한 얼음땅이 되는 것이다. 물 위에 텐트가 쳐지고 저수지 은반 위는 여드름 자국처럼 군데군데 분화구가 생긴다. 붕어를 낚으려는 이들이 곳곳에 구멍을 뚫고 낚싯대를 드리운 흔적이다. 어떤 이들은 붕어를 낚기 위해 밤을 꼬박 세우며 은반위에 불빛을 밝히고 추위 속에서 세월을 낚기도 한다.

얼음낚시에는 안전이 최고 관건. 관리인들은 매일 얼음의 두께를 측정해 10cm 이상 얼음이 얼었을 때만 낚시할 수 있는 곳까지 금을 긋는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썰매를 탈 수 있는 곳도 따로 마련해 놓는다.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에 닿으면 약 10분 거리에 어류정 낚시터를 발견할 수 있다. 어류정 낚시터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음알음 알려진 유명 낚시터다. 물을 퍼올려 조성한 저수지로 석모도와 어류정 사이에 방조제를 막은 간척 농경지에 있다. 만수면적이 15만평에 이르는 낚시터로 1급수를 자랑하는데다 주위의 경관도 뛰어나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직사각형의 저수지인 이곳은 4면이 모두 제방이며 제방 밑으로 도로가 나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방갈로도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과 여행 삼아 나들이하기에도 제격이다.

12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얼음낚시가 시작된다. 자연산 붕어, 배스 등이 수시로 입질을 해대 낚는 재미가 쏠쏠하다. ☀



강화 내가저수지

### 강화의 얼음낚시터

저수지	입 어 료	전 화
인산저수지	10,000원	937-2414, 937-2091
국화저수지	10,000원	934-3151
길정저수지	5,000원	937-3114~5
고구저수지	10,000원	932-4600
항포저수지	10,000원	932-8265
하리저수지	10,000원	933-9095
홍왕저수지	5,000원	937-8361
내가저수지	10,000원	933-4287
분오리저수지	무료	937-7882
어류정저수지	20,000원	932-1333

## 요것만 지키면 얼음놀이 2배 즐겁다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 등 도심에서도 자연이 만들어 준 장난감과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그만큼 각종 사고도 찾아지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평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의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얼음과 눈을 가지고 놀 때 주의할 점을 모았다.

**체온 유지가 관건** 생각보다 동상이 자주 발생한다. 무조건 두텁게만 입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방수가 잘 되면서도 보온성이 탁월한 옷을 입는 것은 기본인데, 스키복이 아니고는 방수가 확실히 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목장갑이나 털로 된 장갑은 쉽게 젖어 위험하다. 신나게 놀 때는 모르지만 1~2시간 놀다 보면 젖은 장갑 안의 손이 빨갛게 동상에 걸린다. 같은 원리로,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 안감의 털이 젖어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고 반쳐 입는 옷은 면으로 된 것을 입어서 땀 흡수와 배출이 쉽게 해야 한다.

**안전사고 유의** 어른도, 아이도 육안으로 봐서는 얼음 두께를 모르기 마련. 시설 관리자들이 유의해야겠지만 어느 선까지 위험하지 않은지 표시한다거나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을 문쳐 던질 때도 뺨이나 귀 옆 등 민감한 부위를 피해야 한다. 문쳐진 눈이나 얼음조각의 무게와 부피가 얼마나 되는 줄 모르고 마구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얼굴을 향해 던지기보다는 가슴 이하를 겨냥 던지고 너무 큰 눈 문치를 던지거나 온몸의 힘을 실어 던지는 건 특히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준비운동도 필수** 요즘 아이들은 학기 중 운동이 부족하다가 방학을 맞아 갑자기 체험학습이라며 밖에 나가서 놀다 보니 골절 등의 사고가 특히 많이 난다.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손목과 발목을 빼는 경우가 잦으므로 관절운동을 시켜주자. 밖에 나가서도 마냥 신나게 방관하기 보다는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나 워밍업을 함께 해주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행동반경이 넓어지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 30년을 이어온 六絃의 세월줄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글 • 신은주(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자유사진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곡을 기타연주로 듣고 기타의 매력에 푹 빠진 인천의 한 남자가 기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오늘의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34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 단체는 한 평범한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리여석씨가 1971년 학생들과 함께 ‘카르카시 고전기타합주단’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연주회를 통해 기타 앙상블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으면서 활동을 넓혀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합주단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1980년 ‘리여석 기타실내합주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연주단으로 출범했다. 리여석씨는 ‘국내에 전무한 기타합주단’을 한 번 보급해보자는 집념으로 15년의 교직생활도 접었다. 그리고 기타독주곡들을 합주용으로 편곡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 합주에 쓰이는 기타들을 사 들였다. 10년 뒤인 1990년,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단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기타 합주단으로 탄탄하게 그 뿌리를 내렸다.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만큼 다성부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인간의 뇌가 감지하는 편안한 주파수에서 만들어지는 기타음은 인간의 감성과 융화가 잘 되어 어떤 곡이든지 기타로 다 연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이 기타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자유공원 언덕을 오른다. 카페 파랑돌 지하에서 4시간 이상 연습을 하는 단원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기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자도 있고 리여석씨처럼 독학으



스페인의 그라나다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정복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궁전을 살아남게 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딴 음악 한 편으로 사람들에게는 전설의 성처럼 기억되는 곳이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여행을 하던 한 남자가 이 아름다운 궁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아픔을 담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로 공부를 한 사람도 있다. 그 출발점은 모두 달라도 기타음악에 푹 빠진 열정은 같다. 한 번 인연을 맺은 단원들은 거의 변동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창단멤버를 제외하고는 단원들은 평균 15년 정도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연주회를 열어 지금까지 정기와 비정기 연주회를 합해 300회 정도 관객과 만났다. 그리고 연주회를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로운 곡을 내 놓아서 그동안 기타 곡으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은 380곡 정도가 된다.

기타의 낮은 소리를 닮은 조용한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기타선율로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다가가면서 긴 세월을 관객과 만나다 보니 이제는 고정 팬이 많이 생겼다. 공연수익금도 늘어났지만 그 수익금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단원들은 돈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연주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견습단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기타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인 이미경씨는 중구문화원에서 기타를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기타음악의 보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

리여석씨는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단원 40명 정도로 넓혔으면 하는 소망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후학양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니이보리 기타오케스트라’에서 그 틀을 가져와 오늘날의 오케스트라를 마련했던 것처럼 자신이 쌓은 노하우를 다른 민간기타연주단에게도 전수해서 더 많은 순수 민간 예술단체를 탄생시키고 싶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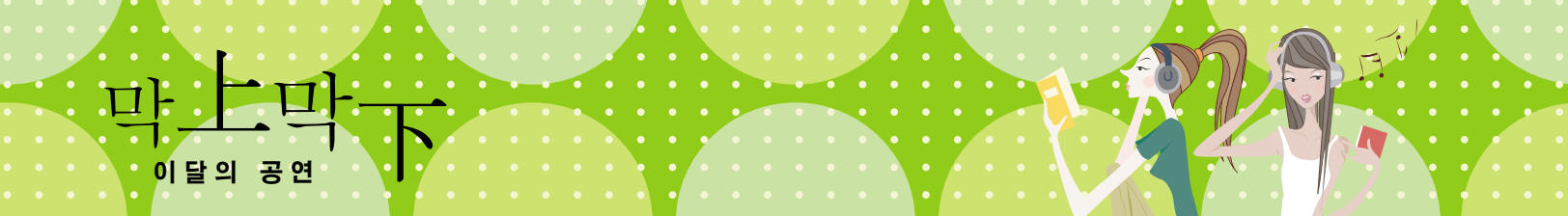
1 기타로 인연을 맺은 부인 조예진씨와 함께  
2 카페 ‘파랑돌’ 벽에 전시된 각종 기타들 3 정기 연주회 모습

새해에는 창단 35 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5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8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가 인천에서, 10월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스페인에서 일본 큐슈의 연주단체와 협연이 계획되어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서 빠져 드는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타들이 다른 음색을 내어 그것들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오늘도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어 집념으로 지속이 되어왔지만 지금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는 힘은 단원들의 희생정신과 기타를 향한 열정이다. (문의 : 765-7829) ☀





### 2006 인천 신년음악회

인천이 새로운 한해를 음악으로 연다. 2006년은 기쁨과 소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따뜻하고 멋진 감동의 무대를 마련한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노인 복지시설, 장애우 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음악회에 특별 초대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소프라노 김인혜, 테너 강무림,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일시** \_ 1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만원 / S석 5천원

(청소년 R석 5천원 / S석 3천원)

**문의** \_ 420-2020~2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여행 2006 부평 신년음악회

부평구는 2006 병술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아름답고 경쾌한 선율과 밝고 고운 음악으로 구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 음악회는 편견과 무관심의 그늘 속에 있는 희귀병 환자와 장애우 등 소외 받는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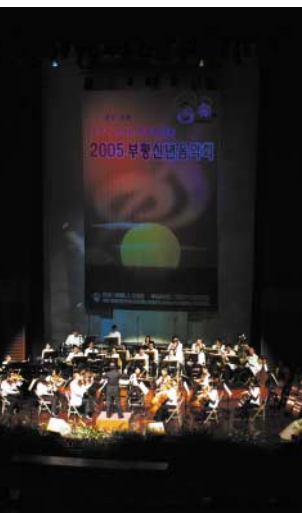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테너 전인근(청주대 교수), 바리톤 장유상(단국대 교수), 뮤지컬 가수 소프라노 김소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부평구여성합창단 등이 무대에 선다.

**일시** \_ 1월 20일(금) 오후 7시

**장소** \_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본관

**티켓** \_ 예매 3천원 (현매 5천원)

**문의** \_ 부평구청 문화공보과 (509-6423)



### 하모니키즈 하모니카 연주회

하모니키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정상의 청소년 하모니카 연주 단체로 현재 6기까지 17명의 단원이 배출되었다.

그 명성은 국내보다 오히려

국제 하모니카대회에서 드높다. 2002년 8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하모니카 대회에 5명이 출전해 독주와 3중주 부문에서 금상1개, 은상3개, 동상3개를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독일 트로싱겐에서 열린 세계 하모니카대회(4년마다 개최)에서는 성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겨뤄 독주부문 3위, 3중주부문 2위를 차지해 세계 하모니카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번에 세 번째로 열리는 연주회는 그들의 실력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잠시나마 하모니카를 불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_ 1월 21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5천원

**문의** \_ 한국하모니카아카데미 (031-477-6879)



### 2006 이은결 매직 콘서트 in dreams

한국 마술의 역사 이은결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전 세계를 누비며

대회를 석권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은결은 화려한 손

기술을 보여주는

스테이지 마술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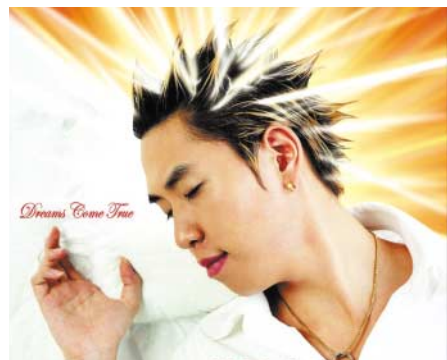
관객과 하나 되어 재미있게 연출된 팔러매직 그리고 스케일이 큰 일루전 매직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의 드라마 매직공연을 보여준다. 이번 콘서트는 세계 유일의 로봇마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외국 매지션의 게스트 쇼로 한층 더 다양하게 꾸며 누구나 한번쯤 꿈꿔온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 \_ 2월 5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 인천가톨릭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인천가톨릭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인천교구내 전례음악연구소에 소속된 단체로 지난 2000년 5월에 창단되었다. 가톨릭 신자 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의 음악적 기량과 정서적인 인간성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6회째인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Haydn 교향곡 No.4 D Major '시계' 2,3악장 등 오케스트라 연주와 소프라노, 테너 독창 등을 무대에 올린다.

**일시** \_ 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019-378-2619



###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꿈과 상상의 나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관객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악당 후크 선장의 해적선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무대는 상상의 세계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할 것이다. 피터팬의 용기와 모험심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 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일시** \_ 1월 21일(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2만원 / 1만5천원

**문의** \_ 극단 국민 (02-322-7117)

### 부평문화사랑방과 함께 하는 창조적인 겨울나기 『상자를 박차고 나온 나비』

• 에스닉 퓨전밴드 『두 번째 달』과 만나는 세계 민속음악

1월 6일(금) 오후 4시, 7시

•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 36.5°의 연극 「가족」

1월 18일 ~ 19일 오후 4시

1월 20일 ~ 21일 오후 4시, 7시

• 내가 만드는 환상세계, 매직스쿨

1월 3일 ~ 31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참가비 : 1만원

• 스크린 위의 콘서트,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2월 7일(월) ~ 10일(금) 매일 오후 4시

※매직스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전화(505-5995)로 예약.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bpcc.or.kr](http://www.bpcc.or.kr) 참조

### 학산방학만화축제 월트디즈니와 함께 떠나는 상·상·모·험

월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3D애니메이션의 입체감과 신비감으로 재미와 모험심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학산문화원이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월트디즈니 만화축제는 다양한 소재와 캐릭터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상상과 모험심을 맘껏 발산 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상연일정표〉

**1월 19일(금)**

오전 11시 · 벅스라이프(95분)

오후 2시 · 니모를 찾아서(100분)

**1월 20(토)**

오전 11시 · 타잔(88분)

오후 2시 · 인크레더블(111분)

**1월 21(일)**

오전 11시 · 몬스터 주식회사(92분)

오후 2시 · 웰컴 투 동막골(133분) · (12세 이상 관람가)

**일시** \_ 1월 19일(목) ~ 21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21일 오후 2시 '웰컴투 동막골' 특별상영)

**장소** \_ 남구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문의** \_ 866-3993





# 이종구 작품 등 미술품 구입 결정



정 현 作, 청동조각, 28×19×56cm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일 '2005년도 미술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3명의 작품 14점을 구입기로 확정했다.

미술품 구입 심사에는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예총 미술협회, 민예총 미술위원회와 인천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이 협의하였고 작품의 구입을 위한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체제를 구성하고 작품성과 시대적 의미에 비중을 두어 신중한 검토 끝에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이종구 작, '백두대간 - 아, 지리산, 지리산!'은 길이가 2미터 60센티에 이르는 대작으로 국내 여러 미술관으로부터 매입 의사를 타진 받아 온 명작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향후 인천문화재단의 자산증식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작가는 인천출신이면서 현재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중견작가로 우리의 토속적인 미감을 독특하고도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해 왔다. 2005년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미술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이와 함께 국내 조각계에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2006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조각가 정 현의 97년 작 청동작품이 구입 결정되었다. 홍익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작가는 침묵이나 아스콘 등의 소재를 통한 전통적 조각의 소재에 일대 변혁을 시도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그동안 인천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온 신진 및 중견 작가인 김진안, 김진희(A), 김진희(B), 도지성, 박동진, 박승천, 양창석, 이재곤, 정재희, 최은규 등의 작품이 구입 결정되었다.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은 미술품 은행사업을 도입하여 단계적인 미술품 자산 확보를 통해 향후 건립 추진될 미술관 등의 콘텐츠를 미리부터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문의 \_ 인천문화재단 (455-7100)

## 재단출범 1주년 맞아 C.I. 선포

인천문화재단은 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C.I.를 선포했다. C.I.는 IFAC(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의 로고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Arts의 이니셜인 'A'를 역동적으로 배치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문화체험 향유환경과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재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재단을 통한 문화,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인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서체와 다양한 색상의 활용을 통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와 예술 활동을 표현하고 풍요로운 미래건설을 위해 정진하는 인천문화재단의 비전 실현의지를 담았다. 슬로건은 문화, 자연, 사람의 조화로운 미래 사회 창출의 비전을 표현한 'Culture Wheel'과 문화의 허브를 의미하는 'Culture Bridge'의 2종의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인천문화재단

도시에 영혼을 불어넣는 **인천공부**  
(도서출판 다인아트, 455쪽, 1만2천원)



인천은 어떤 도시였으며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화두에 답하는 일은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이 대면해야 할 세계, 즉 다른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필자는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인천학연구는 연구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인천문화발전의 기초이며 무표정한 도시에 영혼을 불어넣어 정겨운 도시로 만드는 작업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학문임을 피력한다.

『인천공부』는 지난 10년간 인천학연구원에서 '인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창수 상임연구위원이 그동안 써온 글 40여편을 모은 책이다. 『인천공부』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필자가 공부한 흔적이라는 뜻이지 결코 독자들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왜 그가 인천학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는 '인천학으로 가는 길', 전공인 문학평론가로서 그가 바라본 '인천의 문인들', 인천의 문화를 자장면에 비유한 그의 독특한 문화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 문화의 현장'을 누비며 쓴 글과 '우리 시대의 문화코드'를 해석한 글도 함께 실었다.

필자는 경상도 안동 출생으로 인하대를 나와 1987년 '문학사상'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고려대, 인하대, 평택대 등 대학에서 현대시론과 문예비평론, 문장론 등을 강의했고 현재는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있다. ☀

밀폐와 권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  
(도서출판 다인아트, 192쪽, 9천원)



『프로스트의 목걸이』(2001), 『노천국 씨가 순환선을 타는 까닭』(2004) 등 두 권의 소설집을 낸 바 있는 김진초 씨가 장편소설 『시선』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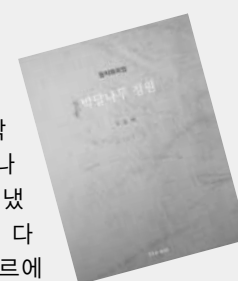
어린 하숙생과 과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세상을 밀어내고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실타래같이 지리한 삶의 시간들을 거망빛 머플러로 직조해낸다.

작가의 말대로 삶이란 '무형의 시간을 유형으로 보여주는 시간의 형이하학' 이거늘, 바로 주인공의 뜨개질이란 행위는 내면의 못 다 이룬 사랑을 욕망하는 코드이다. 그의 사랑관은 '넘침과 부족의 경계에 있으며, 바로 그래서 사랑의 욕망이 난처한 긴장'이기도 하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같은 가락을 되풀이하는 요한 파헬벨의 '캐논 D장조'처럼 이 소설은 금지된 사랑으로 가슴을 앓는 모녀의 이야기를 낮은 음으로 연주하고 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사랑의 크레센도, 그 모방에 의한 변주를 듣노라면 거망빛 바탕에 무채색 외로움을 한올 한올 짜 넣은 머플러와 수평선 너머의 아득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 ☀

창작희곡집 <박달나무 정원>

공연기획 및 극작가로 활동해온 고통희 씨가 첫 작품집 <박달나무 정원>을 냈다. 무엇보다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창작희곡집



발간이 드문 인천 연극계에서 오랜만에 개인 희곡집이 출간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모두 여섯 편의 작품을 묶은 이번 작품집에는 표제로 뽑은 창작뮤지컬 '박달나무 정원'을 비롯해 역시 창작뮤지컬인 '부활의 노래, 아! 고구려'와 '청자 물을 만나다' '빨간 팬티를 입은 청소부' '결혼할까요?' '후아유' 등이 실려 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박달나무 정원'과 '결혼할까요?'는 인천연극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2005년 2001년에 각각 전국연극제 인천대표작으로 출품됐던 작품이다. 또한 '부활의 노래, 아! 고구려'와 '청자 물을 만나다'는 아직 공연되지 않은 신작이다.

'박달나무 정원'은 단군설화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탄생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부활의 노래, 아! 고구려'는 고구려의 멸망과정을 통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의 기상을 표현했고, '청자 물을 만나다'는 고려청자의 맥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장인들의 혼을 그린 작품이다.

'빨간 팬티를 입은 청소부'와 '결혼할까요?'는 한탕주의와 기회주의에 기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풍자하였고, '후아유'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심리극 형태로 풀어낸 청소년 교육극이다. (도서출판 다인아트, 300쪽, 1만원)



# 세계로 비상하는 동북아의 허브도시

우리는 올해 아시안게임 유치, 구도심개발사업의 본격화, 세계로 통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진계획들을 마련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라는 비전에 맞게 새해를 채워갈 그 과제들을 알아본다.



## 시민의 권익·건강이 보장되는 따뜻한 복지 인천

새해 우리시의 복지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 일반사회복지분야 등의 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 23.8% 늘어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및 보육, 여성정책이 강화된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확대되고 노인종합문화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며 중구, 남구, 서구 등에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양질의 의료보전 및 의료시책을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불임부부지원, 치매센터가 운영된다. 또 인천의료원 의료장비 등이 보강된다.

##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공원확충, 학교공원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수목원, 생태숲 조성 등 푸른 인천 가꾸기 사업은 올해도 계속 추진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환경분야에 있어 환경미래관이 건립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이 지급되며 하천 정화사업 등 대기질과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뿐만아니라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학익하수처리장 건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된다. 이색사업으로 공단지역의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동산업단지 Green Street 사업이 추진된다.



## 희망의 교육, 감동의 문화도시

올해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문화 콘텐츠가 개발된다. 이민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촬영세트장 등에 341억원이 투입돼 문화시설의 신설 및 보수가 이뤄진다. 또 삼산실내체육관, 서운체육공원, 강화제적봉 전망대, 인천관광공사 등이 설립된다. 무엇보다 2014년 아시아경기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2006 인천&아츠' 프로젝트와 송도 락 페스티벌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신설 및 보강하며 각 학교의 영어원어민 교사 배치도 적극 지원한다.

##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정기반 구축

GM대우자동차 R/D시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전선류 지중화 사업 등 지역경제육성을 위해 올해 391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역보존재단을 만들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용정지구 무공해 농업용지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이 추진된다. 농수산 진흥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 구획정리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어촌종합개발, 인공어초 시설사업, 연안시장 실태조사 등이 이뤄진다.



## 물류와 교통이 발달된 편리한 도시

올해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거미줄 같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과 도로 유지 및 보수 사업이 진행된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교량보수 보강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진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연장, 계양정거장 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또 대중교통 분야로는 저상버스 구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동인천북광장 조성 사업 등이 전개된다.

## 도시환경개선 및 특수지역개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시계조형물 설치 등 도시계획 및 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갯골유수지주변 친수공간 조성, 강화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당하·불로지구 토지구획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이 이뤄진다. 또 도서지역, 접경지역, 민통선 북방지역, 서해5도서, 강화해안순환도로 등 특수지역에 대한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된다. 송도1공구기반시설, 송도5·7공구와 6·8공구 매립,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 개설 및 기반시설,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성, U-IT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3천589억원이 투입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예단포에서 중산동, 운북환경사업소, 공항고속도로를 각각 잇는 도로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가 개설된다.

## 국제 도시수준으로 민방위·소방력 강화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고 자동우량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방위 급수 시설 등을 신설한다.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구비,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소방진압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등이 보강된다. 또 내가·삼산·신송도파출소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6개 소방서의 분산된 119신고 접수를 본부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119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 꼭 알아야 할 현대인의 생활백서

## 2006년 달라지는 시정

인천에서 산다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다. 매년 새롭게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시의 정책. 인천시민이라면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 달라지는 시정을 알아두자.

### 일반행정 분야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확대(2006년 중)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만이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가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에게 위임해 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 영어마을 운영(2월)

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 환경과 비슷한 시설에서 각종 문화와 생활체험 등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인천영어 마을'을 운영합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서구 당하동 '글로벌 애듀'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5박6일(합숙)동안 운영합니다. 참가비는 120,000원이며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 정책기획관실 440-2175)

#### Cyber 시민 통합 상담센터 운영(7월)

현재 분산 운영중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성문화센터, 장애인상담센터 등 11개 상담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한 개의 포털 사이트로 개발해 운영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6)



### 주택 분야

####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가능(1월)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는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발코니 설치기준에 맞추어 해당 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 주택건축과 440-3814)



####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1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관할 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 지적과 440-3462)

#### 토지종합정보망 전국 온라인 시행(1월)

토지 종합정보망 시·도 시스템을 구축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중개업 정보서비스 등도 실시됩니다.  
(시 지적과 440-3463)

#### 일조권 확보 강화(2006년 중)

건축물의 이적거리 기준에서 대지 경계선과 인접하여 건축함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을 제외한 도로, 하천, 광장 등 나머지 공지가 있을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 주택건축과 440-3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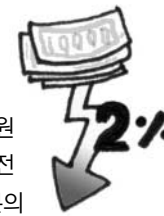
### 사회복지분야

#### 긴급복지지원 실시(3월)

저소득층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면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주거지원은 최대 4개월이며 의료지원은 최대 2회로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0)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1월)

우리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전세금 4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액은 보증금의 70%이며 이율은 3%였으나 올해부터는 2%로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기존 대출자는 변동금리적용). 또 3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4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늘어납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0)



#### 장애인 콜택시 도입(4월)

중증 장애인들의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를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합니다. 총사업비 13억5천만원을 들여 택시 20대가 마련되며 기사 40명과 콜센터 직원 8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입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2)



#### 장애인 복지관 확충(3월)

재가 장애 복지서비스의 균형적인 수급지원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복지관을 신설합니다. 현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에 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중구 신흥동 30-17번지와 남구 관교동 469번지, 서구 백석동 86-1번지 등에 3개소를 확충합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2)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월)

맛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 1주일 6일 동안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 2개반으로 운영됩니다.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 특기·적성 교육지도, 가족캠프, 생활 일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3)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1월)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증을 소유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증을 기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발급하고 인천지역 BC카드 제휴점과 공공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을 확대합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1~5)



#### 경로교통수당 인상지급(1월)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당이 저소득층의 경우 월 14,000원에서 월 16,00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노인은 월 12,000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4)

#### 노인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1월)

노인 취업알선과 민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합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및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센터는 노인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업노인의 사후관리와 노인 인력은행을 구축하고 취업을 알선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5)

####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1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소득지원 보장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운영합니다. 올해에는 총87억4천7백만 원을 투입해 9,058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분야별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2,224명에서 2,676명으로,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은 246명에서 1,962명으로 확대되는 등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4)



#### 청소년 쉼터 확충(1월)

청소년 쉼터를 6개월 이내의 단기쉼터와 1~2년간의 중장기쉼터를 확충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성 단기쉼터 1개소가 신설돼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중장기쉼터는 남녀 각각 1개소씩 운영돼 최대인원 8명으로 1~2년간 숙식이 제공되고 자립생활 준비를 지원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5)

#### 청소년 인터넷 신문발간(1월)

청소년 웹진으로 기존 12,000여명의 사이트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청소년 인터넷 신문으로 업그레이드 돼 서비스를 합니다. 월간형태에서 일간형태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문화, 사회 등 청소년기자 외 전문기고가를 통한 자유로운 취재·편집으로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6)





## 여성정책분야

###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운영(10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여성 전문 사회교육기관인 '계양여성회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92)

###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 확대(3월)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심각한 가정해체 현상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복지수혜 대상세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확대 배치합니다. 기존 상담원 6명에서 122명으로 추가 운영해 보다 많은 가정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714)



###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5월)

우리는 지난해 3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으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 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723)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1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만4세 이하 아동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0%로 확대됩니다. 또 만5세 아동은 8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에서 9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1월)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1월)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기존 23개소에서 50개소로, 680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 설치·운영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보건·위생분야

###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확대(1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낮 시간동안 보호하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이 확대됩니다. 기존 7개소 시설에서 중구와 계양구에 2개소가 신설됩니다.

(시 보건정책과 440-2741~4)

### 금연클리닉센터 확대운영(1월)

시민들의 금연운동을 돕기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금연 클리닉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10개소의 센터에서는 전문상담 및 약물요법, 1:1 맞춤형 비스, 금연클리닉 등록자 6개월 추후 관리 등의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시 보건정책과 440-2741)



###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1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무료진료와 수술 및 입원시 지원을 합니다.

(시 보건정책과 440-2751)

###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행중)

찜질방 영업이 목욕장업에 포함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만19세 이하의 청소년은 22:00~05:00 동안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호자와 동행시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 위생정책과 440-2772~4)

###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확대(1월)

연수구 등에서 시범 운영했던 식품 생산자 실명제를 전 군·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포장지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해 Clean&Safe Food를 지향하고 책임감 부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대형마트 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및 중·소규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2,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시 환경위생과 440-2782~5)



## 경제·교통 분야

### 기업의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 지원(3월)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우리시에 들어오는 일정규모 이상의 본사나 기업에 각종 보조금 및 금융·행정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시 경제정책과 440-2795)



###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 위임(1월)

1999년부터 운영되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됩니다. 우리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컨설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 경제정책과 440-2822)

###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대상 확대(1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대상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도 추가 지원됩니다.

(시 교통관리과 440-3904)



## 정보서비스 분야

### 온라인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1월)

인천 Cyber City Center에서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과정으로 확대됩니다. 연 54회 교육을 70회로 확대 운영하며 게임제작 관련 특강도 실시됩니다.

(시 정보화 담당관실 440-4131~4)

### Web GIS 서비스 구축(2월)

기관별로 개별 관리하던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리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해 웹지도상에서 맞춤형 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정보, 문화시설, 교통 등의 각종 정보를 웹지도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48)



## 환경 분야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1월)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1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시 환경보전과 440-3524)



### 생태마을 지원(1월)

자연생태를 잘 보존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이 생태마을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 환경보전과 440-3532)

###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확대 개편(1월)

자연경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생태계보존지역 지정제도에 강변, 산간, 계곡 등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시 환경보전과 440-3532)



###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2월)

중소기업자가 환경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등의 방지시설설치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시 공단환경관리과 440-3084)

### 농어촌(강화·웅진)종합복지대책 추진(1월)

도시와 농촌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까지 요양보호시설이 확충(3개소)되고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농어촌 종합복지대책이 추진됩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도시지역 대비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사회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농·어촌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7)





## 자전거 타고 멀리 여행가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260km에서 601km로 대폭 늘어난다. 우리시는 2010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도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고 테마별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 주거지역과 상업시설, 지하철역 연계 및 순환 기능을 가진 전용도로 78.2km, 43.8km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남구와 부평구, 계양구 등 도심권에는 86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강화 외곽을 잇는 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는 현재 19km에서 42km으로 늘리고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이나타운(6km)과 영종도(54km), 인천대공원~시흥시~시화방조제(28km)등에 자전거전용 도로가 늘어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5

##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

지난달 5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와 인천 문화원연합회가 공동으로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인천메세나 협의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메세나(Mecenat) 운동은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와 지역 경쟁력에 이바지 한다는 의미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예술운동이다. 기업의 사회참여가 적고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시의 경우 이번 기업메세나 운동이 인천문화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의제21 440-1544

## 송도해안도로~동춘동 도로 개통



연수구 송도해안도로와 동춘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달 7일 개통됐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82억을 들여 길이 770m, 왕복 6차로 규모의 도로를 개설해 우리시에 기부했다. 이 도로 개설로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구 구도심의 거리가 4km 가량 단축되면서 통행 소요시간도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도로 양측에는 폭 2m 규모의 자전거 도로도 설치돼 아암도 해상공원까지 연결된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지난 1994년 1차로 350m구간에 도로를 개설한 데 이어 나머지 420m 구간 공사를 끝내 이번에 개통했다. 도로개통에 따라 연간 50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5

## 섬지역도 무료환승 가능해요

시내버스를 이용할때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강화와 영종도 등 도서지역으로 확대된다. 강화지역은 현금 900원, 교통카드 800원의 단일요금제가 도입되고 군내 시내버스간 승차 기준 1시간 이내에서

무료환승제가 실시된다. 영종도와 용유도 지역은 현행 현금 900원의 단일요금제를 유지하며 1시간 이내에 동일 지역 내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이 가능해진다. 또 강화·영종 시내버스에서 인천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하차 기준 30분 이내에 환승시 요금이 무료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6

## 장애인 일자리 늘어난다

우리시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가 기존 686명에서 올해 927명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 채용 박람회와 장애인 생산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대형세탁장 및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올 4월 시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여성장애인 8명과 경증장애인 40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3

## 중앙공원에 리듬(Rhythm)이 생겼네



우리시와 중국 칭다오시의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아 남동구 중앙공원에 리듬(Rhythm)이란 이름의 조형물을 세우고

지난달 14일 제막식을 가졌다. 리듬은 너비 4.5m, 길이 7m, 무게 36톤의 석재 조각으로, 인천과 칭다오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영원한 우정을 바라는 의미의 피아노 건반과 희망을 상징하는 칭다오시 대표 심벌인 요트를 형상화했다.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양 도시간 교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앙공원에는 우리시와 우호결연을 맺은 베트남 하이퐁시, 중국 톈진시·칭다오시·대련시, 일본 기타큐슈시 등 3개국 5개 도시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44

## 송의경기장,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



문화관광부는 송의경기장을 전국운동장 부문 2005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2005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공공체육시설 운동장을 대

상으로 경영관리, 시설관리,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홍보·마케팅, 조직관리 등 운영 상태 전반에 걸쳐 심사해 선정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인 운영하고 있는 송의경기장은, 웰빙시대에 맞춰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해 왔다.

문의 \_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79-2723

## 생활지리정보를 한눈에

우리시는 각종 생활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하는 '인천 생활지리정보시스템(gis.incheon.go.kr)'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교육, 문화, 음식, 숙박, 의료, 유통 등 종합적인 생활정보는 물론 버스 노선, 정류장, 최단거리 등의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며 인구, 주택, 교통 등 각종 통계현황을 지도상에 표시해 준다. 우리시는 행정정보와 지리정보를 연동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스템을 마련했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53

## 시민 3명에 차량 한대 보유

지난해 11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79만8천214대로 총인구 대비 3.25명당 1대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만2천269대에 비해 2.03% 늘어난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7만5천396대, 버스 6만6천474대, 화물차 15만2천298대, 특수차량 4천46대로 기록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5만5천862대로 가장 많고, 서구 12만5천467대, 남구 12만3천666대, 남동구 12만1천563대, 계양구 9만6천792대, 강화군 2만2천861대, 옹진군 5천437대 등으로 나타났다.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34

## 인천&아츠 프로젝트에 NSC 50억 지원

인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우리시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14일 협약식을 맺었다. NSC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아츠'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 우리시 상복 터졌네

200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12월, 우리시는 다양한 시정활동 중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가 '웹어워드 코리아 2005'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위원회가 민간기업을 포함해 547개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우리시는 기술, 기획, 디자인, 웹접근성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2005년 금연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2005 전국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05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우리시가 전국 7대 도시 중 1위를 수상했다. 또 지난 한해 우리시에서는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공원조성, 도시생태숲 등 다양한 Green Incheon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05년도 도시녹지관리사업'에서 6대 광역시 중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급식제도 및 학교급식의 질 개선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아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해 5억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 2008년 까지 향후 3년간 매년 15억원씩 총 50 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사업 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적인 지휘 자 정명훈 씨가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원 및 인천 시립예술단 육 성 등이 있다.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64

## 2010년까지 영어 원어민교사 215명 배치

‘영어 원어민 교사 5개년 수급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우리시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215명 배치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54억원을 들여 올 해 111개 학교(초등 58, 중 33, 고교 20)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매년 초등학교 114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36곳에 모두 215명의 교사를 배치한다. 나머지 학교 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 획이다.

문의 \_ 시 기획관실 440-2175

## GM대우-대우인천차 완전 통합



지난달 GM대우는 대우인천자동차(옛 대우자동차 부평공장)를 3년만에 완전 통합했다. 대우인천자동차는 그동안 신 차 개발과 내실경영, 수출호조 등으로 지난해 100만대 수출을 기록하는 경영 성과를 얻었다. 또 무분규 노사관계와 기대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등의 성 과를 보였다. GM대우는 당초 대우인천 차 통합을 6년으로 예정했으나 3년만에 조기 통합한 것이다. GM대우 릭 라일 리 사장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GM대 우-대우인천차 통합 축하경영현황 설 명회’를 통해 통합하기까지 물심양면으 로 지원해 준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감사 의 뜻을 전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3

## 야구역사 100주년, 구도(球都) 인천을 담는다

동산고, 제물포고, 인천고 등 인천 고교 야구를 대표하는 3개 고교 동창회가 한 데 모여 결성한 인천야구 100년사 편찬 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인천야구 한세 기’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개화기부 터 인천야구 한세기를 재미있게 소개하 고 있다. 1899년 인천고의 전신인 인천 외국어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일기장 등을 근거로 한국 야구의 시발점에 인 천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직 스포츠 기자 출신 박달화 씨 가 12년 전 인천일보에 연재했던 인천야 구사를 중심으로 ‘빠쓰볼 인천’ (도서출 판 장원문화)을 지난해 11월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구도(球都) 인천야구 의 시작과 변천,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담았다. 박달화 씨는 경인기차 통학생들 로 구성됐던 ‘한용단’의 출범시기를 인 천 야구의 효시로 보고 있으며 인천 야 구의 거장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 하고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웹진 MOO」간담회 개최



지난달 21일 우리시 청소년 웹진 MOO 는 한 해 운영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미대 사관 공보과 캐롤린 글래스만 지역총괄 담당관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우리시 여 성복지보건의국장, 청소년단체 등 90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 에서는 올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기 자들과 제1기 청소년 명예기자들에게 기자증이 수여됐으며 활동을 마치는 청 소년 기자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6

## 우리는 ‘INCHEONER’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대 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어로 ‘인

천사람’을 뜻하는 ‘INCHEONER’를 새로 만들었다. 인천인의 귀속감과 정체 성 확립을 위해 사용될 이 명칭은 해외 공문이나 외신기자 회견시 공식적인 용 어로 사용될 예정이다. ‘INCHEONER’선 정은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12개 대학 교의 교수 및 전문가에 검토·의뢰한 결 과 선정됐으며 앞으로 해외 영어사전에 등재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35

##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출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 회(위원장 신용석)가 지난달 20일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유치위원회 는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자문을

구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유 치위원회는 송도신도시 갯벌타워 14층 에 사무실을 꾸밀 예정이며 중앙부처 등 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서울사무소 를 두기로 했다. 또 유치활동 상황과 유 치 홍보를 통합해 보여줄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치위원 회는 그동안 각종 협회의 총회와 동아시 아 대회 등에 참석해 아시아올림픽평의 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을 펼쳐왔다.

문의 \_ 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440-4172

## 인천~구로 급행열차 운행



경인전철 복복선의 잔여 구간이었던 주 안역~동인천역 구간이 지난달 20일 완 공돼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기 존 개통구간인 20.5km(주안~구로)에 서 6.5km(주안~동인천)가 추가로 완공 돼 총 27km 전구간에 급행열차가 운행 된다. 경인복복선을 오가는 인천~용산 간 급행열차는 1일 205회 연장운행하며 총 운행시간은 현행 62분에서 44분으로 단축된다. 1,980억원이 투입돼 주안~동 인천 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인구가 밀집 한 수도권 지역의 이용객들에게 교통편 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한국철도시설공단 1588-7270

### 교육청 소식

#### 유치원과 고교 수업료 3%인상

올해 우리시 공립유치원의 수업료와 고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각각 3%씩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 을 골자로 지난달 8일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립유 치원은 연간 1만3천200원, 고교는 연간 3만8천900원이 오른다. 교육재정 수요의 증가로 수업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됐으며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실업계고 대학 진학률 높아져

우리시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8.9%, 2001년 32.2%, 2002년 37.2%, 2003년 47.7%, 2004년 56.1%, 2005년 64.7% 등으로 매년 6%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취업희망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자 중 17.5%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 경찰청 소식

#### 우리농산물판매 앞장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광현)은 지 난해 11월 우리시 농산물을 생산자 가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청사 별관에 개설해 농촌사랑 및 자매결연마을을 돕기에 적극 참여했 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화군 당 산리마을에서 생산한 쌀·잡곡·고구마 등이 판매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연 2~3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농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_ 인천지방경찰청 433-0112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2814

##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2814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46

##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의정소식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15일~12월13일 각 실·국 및 관련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 12월 14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의건과 200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건을 원안 승인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의건도 원안 승인했다.

이어 200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했다.

- 200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 4조 1,774억 8,457만 4천원
- 200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 1조 7,643억 6,998만 7천원
-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 4조 2,978억 531만 4천원
- 200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 1조 5,257억 2,686만 4천원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15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비정규인력(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 사항 2건과 입법정책지원팀 입법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 등 3건을 처리요구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15일~11월24일  
 공보관실 등 해당 실·국 및 관련기관의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23건,  
 처리요구사항 17건 등을 처리했다. 건의사항  
 으로는 종합민원실의 업무 중 최근 여권 제  
 작방법이 바뀌어 민원인들이 몰려 불편을 겪  
 고 있으며 기구도 축소된 바 있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기구 및 위  
 치변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개선방안 등  
 25건을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 **산업위원회**  
산업위원회회회는 지난 11월15일~11월24일 경제통상국 등 해당 실·국 및 관련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요구사항 12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34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가 계속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제재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다.

-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15일~11월24일 도시균형건설국 등 해당 실·국 및 관련기관 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사항 12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4건 등 을 처리했다. 도시균형건설국 감사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 용역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요 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 테이블 위에 턱 괴는 행위는 NO!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 이제 인천은 진정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라섰다. 굳이 비즈니스로 인한 해외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만날 기회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한사람 한 사람의 매너와 에티켓은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매너와 에티켓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 테이블 매너 (Table Manner) I

테이블 매너의 기본 정신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요리를 맛있게 먹는데 있다. 식탁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공간이 아니라 멋진 사교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요리의 맛은 기본적으로 요리사의 솜씨나 재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식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예약한 시간에 레스토랑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배인 혹은 리셉션니스트에게 자리를 안내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레스토랑에 들어서서 곧바로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앉아 버리는 행위는 에티켓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정식 디너에서는 서열을 중시한다. 레스토랑에서는 대개 안내자가 제일 먼저 상석의 의자를 빼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석에 그 날의 주빈이 앉도록 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연회 행사에 있어서 서열의 결정은 호스트나 호스테스의 역할 중 하나로 대개 주빈은 고령의 여성이나 처음 초대한 사람으로 정한다.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명인사도 주빈의 자격이 있다. 호스트의 친구나 친척 등은 말석에 앉는다. 또한 남녀가 같이 앉지 말고 번갈아서 앉도록 한다. 매우 중요한 여성 손님은 호스트의 오른쪽에, 그 다음에 중요한 여성 손님은 주빈 남성의 오른쪽에, 부부나 커플이 함께한 경우에는 나란히 앉지 않고 떨어져 앉도록 한다.

식당에서 좋은 자리의 조건으로는 앉았을 때 전망이 좋은 자리가 최상석이지만, 창가 자리라면 외부의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곳, 무대나 쇼를 관람하는 경우라면 스테이지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다. 서양에서는 Lady First의 여성 존중 사상이 에티켓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리에 앉을 때도 여성이 앉고 난 후에 남성이 앉는 것이 원칙이다. 여럿이 식사할 경우에는 고령자, 연장자, 여성들과 함께인 경우는 남성은 그들이 앉을 때 까지 의자 뒤에 서서 기다리거나 여성이 의자에 앉을 때 도와주는 것이 신사의 에티켓이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깊숙이 하여 앉고 상체는 바로 세운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다리는 흐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손의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나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세우거나 턱을 괴는 등의 행위는 삼간다. ☀

자료제공 \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 테이블과 나와의 간격은?

부드러운 움직임, 자연스런 자세는 나 자신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바르게 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몸을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어깨나 팔꿈치를 뻗치는 등 보기 싫은 모습은 대개는 테이블과 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깝기 때문에 생겨난다. 테이블에서 가슴까지는 대개 주먹 두 개 만큼의 거리를 두면 된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의자의 위치를 바꾼다며 소리를 자주 내는 것은 큰 실례이다.



## 그대들은 희망을 쏘았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하지만 장외룡 감독이 이끈 '외룡구단'의 푸른 물결 돌풍은 K리그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인천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1-5로 대패했지만 2차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파상공세를 펼친 끝에 값진 2-1 승리를 따내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인천의 준우승은 창단 2년차 시민구단의 성과로는 프로축구사의 한 페이지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직까지 변변한 전용훈련장 한 곳 없어 경기도 가평, 경남 양산 등으로 떠돌이 훈련을 다녀야하고 걸출한 스타도 없는 그야말로 '잡초' 같은 팀이지만 인천은 전기 2위, 후기 5위로 통합순위 1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전기 우승팀 부산 아이파크를 가볍게 침몰시켰다.

비록 돌풍은 정상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감독과 선수들은 2006 시즌에 기필코 '외룡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축구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있다. 그라운드의 '잡초'는 벌써 꿈틀대기 시작했다. ☀





# 봉인된 서민들의 애환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한겨울. 비좁고 끔찍 얼어붙은 비탈길엔 연탄재가 허영게 깔려있었다. 계딱지같이 붙어있는 집 앞엔 뿔뿔하게 얼어붙은 빨래가 명태마냥 늘어져 있고 그 끝에 콧물처럼 매달려 있던 고드름. 아이들은 처마 끝 고드름을 따서 ‘창창’ 칼싸움을 벌였다. 달이 가장 가깝다고 달동네라고 불리던 곳. 2005년 겨울. 옥련초등학교 3학년 7반 네 악동(김재형, 박경철, 하진호, 한민규)에게 달동네는 현실에 없는 이름이었다. “달들이 사는 동네요~” 오늘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은 진호의 대답이다. 달동네 박물관에 가면 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글·한정민(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김성환



## 달들이 사는 동네?

“와 큰 배 같다.” 달동네 박물관은 동구 송현동 옛 수도국산 근린공원에 마치 항구에 정박한 배의 모습으로 우뚝 서있다. 여러 박물관을 섭렵했다는 재형이와 민규에게 박물관의 의미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다.

노아의 방주처럼 산꼭대기에 닳을 내린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자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네사랑방 역할을 했던 복덕방이다. 맑은 유리상자 속에 모셔놓은 거창한 유물, 혹은 토끼가 방아 쪼는 달의 모습을 기대했던 아이들은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복덕방을 시작으로 꼬불꼬불 끊어질 듯 이어진 골목길엔 이발소, 솜틀집, 만화방, 연탄가게가 늘어져있다. 저만치 뽕튀기를 파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이고 낯선 사람을 보고 짖어대는 누렁이와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도 있다.

“너희들 엄마의 엄마, 혹은 엄마 친구의 엄마가 살던 곳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야.” “엄마의 엄마요?” “그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시절 오만가지 생활상이 이곳에 담겨 있단다.”

##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달동네 박물관 기행에 동행한 동구청 문화공보실 박물관 위일환 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작은 어촌이었던 제물포는 1924년경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등 총 4만1천여 명이 모여 사는 이국도시로 변모했어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상권을, 중국인들에게 노동권을 빼앗기고 지금의 인천 동구 송현동, 송림동 등 새로 생긴 마을로 찾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숲 언덕이었던 곳이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로 변한 거죠.”

이후 6·25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70년대 일 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수도국산 달동네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이들. 그런데 왜...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부모님 어린시절 동네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을까?

“달동네 박물관은 수 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 한 이곳 주민들의 건의로 세워진 거예요.”

## 다람쥐처럼 내달리던 골목길

흙벽에 기와를 얹은 이발소의 추억.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다 데운 후 면도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겨주고, 번들거리는 포마드를 발라줬던 곳이다. 외풍이 심해 이불 밖으로 내민 얼굴로 찬바람이 송송 지나던 겨울, 두툼한 솜이불은 혹한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여기서가 뭉친 솜이불을 뽐송하고 폭신한 이불로 재탄생시켜줬던 은물솜틀집은 실제로 3대째 운영되던 가게 상호를 그대로 따왔다.



깜박이는 백열전구 아래 종합선물세트, 과자봉투, 성냥갑 등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구멍가게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담벼락에는 각종 담화문과 표어가 너저분하게 붙어있고 거무스름한 타마구(코르타르)를 칠한 전봇대도 서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모습.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정지된 시간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말라붙은 콧물로 옷소매가 딱딱해진 채 동상 걸린 손으로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에 열중했던 달동네 소년들도 이런 골목을 다람쥐처럼 누비고 다녔을 터였다.

## 화장실 앞에서 ‘발동동’

달동네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동화장실. “예전엔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 동네사람들이 다 함께 공중변소를 이용했다.”는 말에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놀람은 이내 호기심으로 변한다.

민규 경찰이 재형이 진호는 돌아가며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본다. “아유, 힘들어요.” “다리가 저려요.”

잠깐 앉아보는 것도 힘든데 생리현상과 싸우며 공중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던 달동네 주민들은 매일 전쟁 같은 아침을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공동구역을 거치자 골목에 한평짜리 판자집들이 붙어있다. 땅은 모두 임자가 있었으니 사실상 허공에다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보급자리. 내 집 마당을 만드느니 집 한 채, 방 한 칸을 더 지어가며 어쩔 수 없이 모듬살이를 해야 했을 것이다. 비좁고 답답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공간을 이해하고 이 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

###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자던 시절

누런 신문지를 덕지덕지 바른 방안에 들어가 아이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 좁아요?” “여기서 잠도 잤어요?” 한 이불 속에서 식구들이 모두 뒤엉켜 자야 했던 시절. 밤일 다녀 온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아랫목 이불 밑에 묻어뒀던 밥 한 주발. 새벽녘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 잠든 모습에 안도하며 윗목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했던 아버지... 이제는 과거에 묻



힌 추억 한 조각일 뿐이지만 그들로 인해 지금의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까?

시키면 문고리. 손때 묻어 반질거리는 장롱도 아이들에게는 낯선 즐거움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흔했던 연탄이 이제 박물관 속 유물이 됐다. 연탄을 봤다는 아이들의 대답이 생뚱맞다. 부엌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다. “식당에서 봤어요.” “전 TV에서요.”

공공 연탄집게로 들어올리며 눈살을 찌푸리는 아이들. 그래도 재미있는 웃음을 흘린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거실까지 따뜻해지는 아파트촌 아이들은 집게로 연탄을 집어 드는 게 장난거리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하루 몇 차례씩 매캐한 가스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가면서 구멍을 맞추기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겨울철마다 연탄 가스 중독사고 기사가 빠지지 않던 신문 사회면과 가스 중독에 김치국물이 해독효과가 있다는 등의 민간 처방도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 ‘메이플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생활 구역을 거쳐 기념공간에 들어서자 만화가게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구했는지 가장자리가 닳은 현 만화책들이 잔뜩 꽂혀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권씩 집어 들고 보던 아이들은 금세 싫증을 낸다.

“재미없어요.” “너희들은 뭐가 재밌니?” “메이플스토리요.”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선 못해요. 컴퓨터게임이거든요.” 오늘 진호의 생일파티 때 식사가 끝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으로 2차를 즐긴다.

그래도 옛날 장난감 등을 파는 기념품코너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흥이 난다. 선물을 주겠다며 한 개씩 고르라고 하자 경찰이와 진호는 고무줄 총을 재형이와 민규는 입으로 붙여 작은 공을 공중에 띄우는 놀이감을 선택한다.

“컴퓨터게임보다 재밌니?” 아이들은 대답도 잊은 채 놀이에 여념이 없다.

공간 한 편에선 수도국산 달동네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서로 보듬을 줄 알았던 우리 이웃들의 얘기가 흘러나온다.

### 이제 현실의 생일파티장으로

박물관 내부 배경은 30분에 한번씩 조명이 어두워지며 밤으로 바뀐다. 어두워지면서 가로등이 없는 달동네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다듬이 소리가 들려온다. 야경꾼의 소리도 간간이 들린다.

“으스스해.” “무서워.” 어둡고 비좁은 데다 동물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니 무서워진 걸까? 혹시 꺾어보지 못했던 ‘가난’이라는 어둠의 굴레에서 자신들의 현실로 빨리 되돌아가려는 본능은 아닐까?

“오늘 생일음식은 뭐니?” “피자! 치킨! 떡볶이...!” “몇 십 년 전 이곳에 살던 아이들은 생일에 뭘 먹었을까?” “떡이요.” “초코파이요.”

생일상을 받거나 했을까? 친구들 초대는 고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자장면 한 그릇씩 먹을 수 있었다면 최고의 생일이었을 터였다.

다음에 함께 못 온 친구와 다시 한번 들르겠다며 네 악동들은 피자과 치킨이 푸짐하게 차려있을 생일 파티장을 향해 씩씩하게 걸음을 옮긴다. 이 아이들이 컸을 땐 ‘메이플스토리’도 소중하고 귀한 추억으로 봉인된 채 박물관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것들을 보며 어른이 된 경찰이 진호 민규 재형이는 입가에 한자락 미소를 흘리겠다. ☀



달동네 박물관은 웅장하거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박물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1시간이다. 그럼에도 달동네 박물관이 주목받는 것은 국내 박물관 역사상 서민들의 진솔한 일상을 테마로 삼았다는 점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개관하고 35일 무료관람기간 동안 총 36,351명이 다녀갔다. 하루 평균 1,010명이 방문한 꼴이다. 12월 1일 유료화한 이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아 12월 9일까지 2,420명이 다녀갔다. 향수에 이끌려온 노인들부터 유치원 단체관람까지 방문객 연령층도 다양하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국 최초인 이곳 달동네 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찾아가는 길** \_ 달동네 박물관은 송현시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이용하거나 현대시장 맞은편 서흥초등학교에서 위로 뻗은 길을 따라 갈 수 있다.

**개장시간** \_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_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문의** \_ 770-6131



※함께 동네 한바퀴 돌기를 원하는 어린이(초등 4년~6년)는 신청하세요. (440-2071)



# 매콤한 국물 “어, 시원~하다” 인천표 해물전골



〈굿모닝인천〉에서는 인천의 특색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이나 인천에서 유독 유명한 음식을 독자가 배워보고 음식 맛을 내는 비결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올 한해동안 인천의 특색음식과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배워 볼 메뉴는 인천해물전골·바지락칼국수·향토자장면·밴댕이회·쭈꾸미볶음·꽃게탕·화평동냉면·순무요리·물تب빙이탕·쫄면·전통장어요리(무술)이다.

글·정경애(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자유사진가)

인천은 바다의 도시답게 해물요리가 발달했다. 그중에서 대표주자 격이 해물전골. 부평에는 해물탕 음식점이 성업 중이어서 우리 시에서 ‘해물탕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하기도 했다. 새우, 게, 맛살, 쭈꾸미 등 10여 가지 해물이 기본재료. 여기에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미나리 등 야채가 약간 첨가돼 신선한 해물과 야채가 곁들여져 매콤한 국물 맛이 완성 된다.



오늘 해물전골 맛있게 끓이기에 도전한 주부는 이규정(34·사진 오른쪽)씨. 10살 짜리 아들과 연년생인 딸을 두고 있는 11년차 주부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음식 준비를 즐기는 그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터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천의 전통음식인 해물전골을 배워볼 요량이다.

깔끔한 주방에는 어느새 해물전골 재료가 손질돼 가지런히 접시에 놓여있다. 서해해물탕(525-9048)의 안주인이자 주방장인 박경숙 씨(51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냄비에 담기 시작한다.

먼저 냄비에 콩나물과 무를 깔고 그 위에 양념장과 마늘을 듬뿍 넣는다. 이 양념장은 박경숙 씨만의 비법. 가정에서는 탕을 끓일때 보통 고춧가루를 쓰는데 고춧가루는 끓으면서 국물에 불어나 텁텁한 맛이 난다. 미리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쓰면 훨씬 맛이 깔끔하고 감칠맛이 난다는 것이 박경숙 씨의 설명이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 재료를 냄비에 차곡차곡 넣는다. 1일 요리사 이규정씨도 해물 담기를 거둔다. “음식점에서는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 많은 해물들을 넣고 맛을 내지만 집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해물전골의 맛을 내는 기본 재료들만 갖추면 되지요. 그건 바로 곤

이라고 불리는 동태내장, 바지락, 낙지, 꽃게예요. 이것만 있으면 웬만한 음식점의 해물전골 맛을 낼 수 있어요.”

해물전골의 맛은 육수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집마다 맛내기 비법이 따로 있지만 ‘서해해물탕’은 박경숙 씨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가리와 무, 양파, 청양고추, 후추 등 기본 야채를 넣고 3시간 이상 끓인 육수로 맛을 낸다.

베테랑 주부인 이규정씨가 의문이 생긴 모양이다. 집에선 보통 해물전골을 끓일 때 쭈갓을 썼는데 오늘 재료에서는 쭈갓은 쭈 빠져있고 대신 미나리가 준비돼 있다. 박경숙 씨는 “쭈갓은 오래 끓이면 재료가 뭉그러져 모양도 안 날뿐더러 쭈갓의 진한 향이 해물 고유의 향을 없애기 때문에 미나리를 쓰는 것이 더 좋아요.”라고 친절히 설명해 준다.

차곡차곡 예쁘게 세팅이 끝난 재료들은 센 불에서 일단 한번 끓여주고 불을 줄이고 5분만 더 끓이면 맛있는 해물전골이 완성된다.

해물전골 맛을 본 이규정씨가 한마디 한다.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집에서 해물전골 끓일 때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사용해 봐야겠어요.” 오늘 배운 비법이란다. ☀



## 해물전골 맛나게 끓이기

〈재료〉야채 : 콩나물, 대파, 미나리, 팽이버섯 각 한 움큼, 무 사방 5cm 3조각, 청양고추 1개 / 해물 : 갑오징어, 오징어, 한치알, 보리새우, 맛, 키조개, 쭈꾸미, 꽃게, 대하, 대합, 소라, 가리비, 홍합, 바지락, 미더덕, 곤이(동태내장), 산낙지 / 양념 : 마늘 2큰술, 양념장 2큰술

### 〈만드는 방법〉

- 1 콩나물과 무를 냄비 바닥에 깎다
- 2 미리 준비한 양념장과 마늘을 넣는다
- 3 깨끗이 손질한 재료를 냄비에 보기 좋게 담는다
- 4 꽃게, 대하 등은 맨 위에 놓아서 보기 좋게 장식한다
- 5 육수를 크게 한 국자 넣는다
- 6 국물 맛이 우리나라도록 10분 동안 센 불에서 끓이고 불을 줄여 5분 더 끓인다.

### 〈맛내기 Tip〉

- 1 고춧가루 보다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서 쓴다
- 2 쭈갓 보다는 미나리를 쓴다
- 3 해물과 야채는 끓이면 물이 생기므로 육수는 처음부터 많이 넣지 않는다.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2)로 연락 주세요.





### 정말 촌스럽구나

13년전 사진을 보니 나오는건 웃음 뿐. 막내는 입장권 자랑에 함박웃음을 짓고 큰딸과 둘째딸은 놀이공원에서 행어 잃어버릴까 두 손을 꼭 잡고 있네요.  
한연옥 (부평구 산곡1동)



### 난리부르스

지난 추운 10월 강화도 친구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대하를 구워 먹는 사이 꼬마 친구들끼리 갯벌에 나가 망둥어를 잡는다고 텅굴어 옷에 난리가 났던 모습 이랍니다. (우리아들은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네번째입니다)  
김학범(서구 가좌2동)



### 소나무와 새해 각오

올해는 편식도 하고 많이 먹지도 않아서 키가 크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한그루 소나무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사나이로 커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준서 (서구 석남동)



### 단짝친구 나리

고등학교 2학년 가을소풍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공룡 포즈를 따라하기로 했는데 나리가 져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 여고생 시절이 생각 나네요.  
이미진 (서구 가좌3동)



### 아이들의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 일까?

언젠가 TV에서 폐차장 화면을 보더니 저희 아이가 폐차장 놀이를 한다면서 자동차 장난감을 차곡차곡 쌓아 놓더라고요. 가끔은 엉뚱한 면이 있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 엉뚱한 면 때문에 여러 사람이 웃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장정화 (남동구 고잔동)



### 수학여행에 담긴 추억

앨범을 살며시 펼쳐보니 꿈꿨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이제는 아이들의 소중한 엄마로 살아가는 중학시절의 7총사. 그곳에서 우린 맹세했지. 하늘에 부끄럼없이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친구들아, 지금도 이 맹세 기억하고 있지? 사진보면 꼭 한번 연락하자.  
박미경 (남구 주안 4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자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굿모닝時評

# 나로부터 시작하자



글 • 崔元植 (인천문화재단 대표 · 인하대학교 교수)

2006년이 밝았다. 세상이 여전히 어수선하다고 새해 벽두부터 푸념하는 소리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인생은 유전(流轉)한다. 이 엄숙한 진실을 곰곰이 새기면 세상에 대한 비관과 낙관 사이를 종작없이 왕복하는 감정의 동요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정말 인생만사가 새옹지마(塞翁之馬)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불러오고 그 좋은 일이 다시 나쁜 일을 불러오고 또다시 그 나쁜 일이 좋은 일을 불러오는 이 연쇄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인생의 양면성을 투시한 '변방 늙은이' (塞翁)의 지혜를 본받아 남탓하지 말고 자기로 돌이켜 실담게 일을 꾸리는 성숙한 태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가누고 싶다.

개인적으로 지난 해는 쉽지 않았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책상물림으로 생애하던 사람이 분에 없이, 새로 출범하는 인천문화재단을 맡아 조직을 꾸려나가려니 어려움을 실감하곤 했다. 수성(守成)이 창업보다 힘들다는 말은 엄살이기 십상이다. 시정부, 시의회, 시언론, 시문화기관, 시문예단체 등과 협의를 나누면서, 영남대에서 인하대로 옮긴 게 벌써 20여 년전인데 이제, 비로소 나의 귀향이 숙성되고 있다고 체감하곤 했다. 편한 위치에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던 야인시절이 그리워질 때도 많았다. 조직은 작아도 시민적 기대는 적지 않은 문화재단은 일종의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下心)을 한결같이 견지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새삼 깨달았다. 틈틈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둘러보면서 인천에서 훌륭한 예술가와 문화예술활동이 보석처럼 곳곳에 박혀있음을 보았다. 재단 대표로 취임하면서 나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금언을 들어 재단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힘을 빌려달라고 안팎에 호소한 바 있는데, 빈 메아리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감을 가진다. 그 바탕에는 인천시민들의 문화열을 확인한 기쁨이 도저하다. 흔히 인천은 좋은 공연이나 전시가 유치돼도 관객과 청중이 모이지 않는다고, 기껏 무료권을 뿌려도 그래도 텅텅 비기 일쑤라고들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도교필하모닉 연주회 때의 성숙한 열기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에 보여준 따듯한 호응은 잊을 수 없다. 특히 1,600여장의 입장권이 매진된 후자는 특기할 일이다. 인천시민들

의 연주회예절도 아주 훌륭했다. 서울에서도 공연 때 관중 또는 청중의 소란으로 흥역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공연에서 보여준 인천시민의 품위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행사의 품격을 가지런하게 유지할 때 유료관객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유료관객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공연예절도 훌륭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인천문화예술인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예술력을 갈고 닦는 개인적 · 집합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갈파하였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백성의 질고(疾苦)를 어여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남으로부터 나로 에도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 내년에는 인천문화의 설계도를 함께 지어 진정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천문화예술의 꽃이 개화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 내 가슴에 새긴 한 귀절

불환인지불가지 환부지인야(不患人之不知 患不知人也)

-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하라.

이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속상하다고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곤경에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남들 속에서 훌륭한 이를 찾는 적극적 사고로 전환하면 마음의 평정은 물론이고 새 동지를 얻는 기쁨도 맛볼 터이니 그야말로 '팽 먹고 알 먹기'가 아닌가?





## 부평온천을 메워 버리다

카툰니스트 • 이영호(kalje@paran.com)





# 자연이 준 좋은 선물, 보약

글 • 김한의원 원장 김영균 (424-2255)

일반사람들은 대개 보약이라고 하면 그저 강장약 정도로 인식하거나 조금 더 생각해서 나이가 많이 든 노쇠한 사람들이나 먹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만성피로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엔 공부하는 수험생들, 신경을 많이 쓰는 젊은 직장인들, 또 이로 인해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보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복잡하게 변해가는 사회 환경 때문에 생긴 정신 신경계통의 악화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약이란 어떤 것이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보약이란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생체의 반응성을 높임으로써 그 기능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사람의 몸에 영양을 좋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이라고 정의된다. 인체 내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허약해진 부분을 보충하는 것 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기능적 정신적 허약으로 인해 생긴 많은 질병들에 대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보약은 치료약이며 질병의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불행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한약을 먹는다고 스스로 창피해 할 필요가 없으며, 주위 사람들도 자기 몸을 너무 사린다는 식의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건강은 건강할 때 젊어서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요즘의 학생들은 비단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학생 혹은 초등, 중학생들도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입마름, 어지러움, 변비 또는 설사, 잦은 짜증 등이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수족냉증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면 학습의욕 저하나 민감할 시기이므로 성격형성에도 좋지 않으니 빨리 치료해 주어야 한다.

보약을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약의 성분은 크게 특수성분과 일반성분이 있는데 질병의 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특수성분이며 호르몬, 유사물질, 배당체 정유페놀물질, 알칼로이드 등의 성분이 있다. 일반성분으로는 수분, 단백질,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류, 핵산대사참여물질, 세포자극물질 등이 있고 특수성분의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도달된 현대적 연구의 성과에 기초된 약리작용으로는 첫째, 인체의 장기조직을 자극하여 약해진 기능을 높여주며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보충해 준다.

둘째, 정신적 육체적 활동능력을 높여준다. 중추신경을 긴장시켜주고 뇌수의 연합기능을 높이고 사고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며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

셋째, 생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방어기능인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키고 항체의 생산을 자극하여 몸의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넷째, 노화과정을 늦추며 세포의 재생과정을 촉진하여준다. 동맥경화를 막는 작용이 있고 성호르몬 분비기능의 퇴화를 막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좋은 약이지만 자기 몸의 상태에 알맞고 정확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건강 식품이나 개소주, 흑염소 등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전문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써야 제대로 효험을 얻을 수 있으며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좋은 선물을 올바르게 써서 좋은 효과를 얻어야겠다. ☀



# 주한미대사관 청소년웹진 MOO 특별강연

글 • 연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진영 (청소년웹진 MOO 제5기 학생기자)

2005년 12월 2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의 영상회의실에서는 청소년웹진 MOO의 지난 1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 MOO를 이끌어 갈 제6기 기자들과 제1기 명예기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나 이번 간담회에는 캐롤린 글래스만 주한 미 대사관 지역총괄담당관님의 특별강연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제5기 편집장인 이수진학생이 웹진 운영성과보고를 마친 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제5기 기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제6기 기자들과 제1기 명예기자들에 대한 기자증 수여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의 격려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지역총괄담당관님의 특별 강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이 특별 강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당연히 통역을 통해 강연을 들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은 한국말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어때요, 내 한국말 괜찮습니까? 인내심 필요해요.”라며 멋쩍은 웃음으로 양해를 구하셨지만, 띄엄띄엄 하는 어색한 한국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보다는, 잘 되지 않는 발음을 어렵게 구사하며 도리어 미안해하시는 그 모습이 더욱 감동스럽기만 했다.

강연의 주제는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을 들어 자원봉사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MOO기자들의 활동을 칭찬해 주셨다.

강연이 끝나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지난 번 국제 청소년 자원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려고 대사관에 갔던 일이 있어서 그에 관해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질 않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우리 5기 기자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짧게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사회자의 폐회와 함께 2005년 청소년웹진 MOO 기자 격려 간담회는 모두 끝이 났다.

어찌 보면 격려 간담회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 서로간의 상견례가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할 테니까. 그러나 이 한 시간의 행사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다. 격려말씀을 해주신 분들 외에도 간담회 내내 사진촬영을 해준 이성호학생과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추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자칫 어른들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나와 나머지 14명의 기자들은 느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로 씬 없이 외쳐왔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지만... 다가오는 2006년, 아니 앞으로 언제까지나 인천 청소년 웹진 MOO가 계속되어 청소년들이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 출렁거리는 푸른 수평선 홍유정

글·김 류(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인어 아가씨 홍유정(洪裕政) 양은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집 유리창 안에 있었다. 물속에 사는 인어여서 지상의 여자들이 하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의자에 앉아 웃음을 한입 가득히 물고 건너다보는 맑은 눈망울과 그 가무잡잡하고 보송보송하고 푹푹한 얼굴의 느낌이라니! 그리고 순진한 감정들!

물속이라면 정말 물미역 줄거리 같을 것이고, 거기서 나는 싱싱한 내음 같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동통한 청각채(靑角菜) 같기도 한... 아니다. 금방 건져낸 한 마리 청어 같은, 푸른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서늘한 느낌도 있다. 목소리는 또 어떤가. 젊은 처녀 아가씨의 허스키 보이스는 또 다른 매력이다. 풀장에서 소리 지르느라고, 강사 노릇하느라고 그렇게 쉬었다는.

유정 양이 있는 곳은 그냥 집이 아니라 넓은 채광창과 커다란 풀장이 있는 부평국민체육센터. 12월인데도 그날따라 아주 온화하고 맑은 날이어서 가만히 두어도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이십대 인어 아가씨의 유리창 방안은 또 그렇게 푸른 물결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수련수련 춤추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하느적거리는 수많은 줄기들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몽롱해진 것인지, 갑자기 분광(分光)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만약 저 물결 밑에 가라앉는다면 인어는 다가와 건져 줄 것인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든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몽롱해진 것은 맑고 따듯한 햇살과 금세 점심을 먹은 탓에 온 식곤증 때문일 것이다.

“인어요? 난 물풀이 더 좋은데. 소신껏 쓰세요.”

후후. 소신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까지 쓰는 것은 아닐 터인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써도 절대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며 던진다. 그때 이 인어, 아니면 물풀 아가씨에 대해 이 쪽에서 얼른 대답하고 싶었던 말은, 약간의 심술을 섞어서, 아마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을 것이다.

“술이 많고 블론드 색으로 물들인 한 다발 풍성한 머리칼, 선이 진하게 잡힌 쌍꺼풀, 그리고 선한 빛을 머금고 있는 검은 눈망울, 그 언저리에 내려앉는 장난스러운 웃음기와 가느다란 주름살들. 또 있다. 조금은 머슴아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구김 없고 숨김없는, 덜렁이는 몸짓. 벌써 중학교 때 쯤부터 수영을 본업 삼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학과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한,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직도 흔들림이 있어서 그런지 풀장의 물속도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어른거린다. 25미터, 6레인짜







리 풀장.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일제히 풍덩풍덩 물장구를 친다. 공연히 물속은 좀 춥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그런 이쪽의 속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그녀는 얼른 따듯한 커피 한 잔을 내놓는다.

“수영 강습은 새벽에만 해요. 새벽 6시요. 아침 9시 이후에는 장애인, 노인대학 학생들 스트레칭 지도도 하고요. 이곳을 운영하는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 일도 돕고요.”

실제로 자신은 수영보다 호루라기를 불고, 이래라 저래라 물 밖에서 소리 지르는 일이 더 많다고 한다. 풀장 안에서는 물속에 있는 수강생들을 전부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영을 할일은 그닥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의복도 슈트라고 부르는 해너복 비슷한 것을 주로 입고.

그러면서 동행한 어느 수강생에게 대뜸 왜 오늘 새벽반 강습에 안 나왔는지를 묻는다.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게 물을 만하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 수강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던져서 게으름을 질타하는 ‘나무람’이다.

“으음, 하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요?”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인어는, 물풀은 이렇게 인간적

이고 건강하다.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우들,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 발달장애아들을 섯뽕 품에 안고 풀장에 들어가 는, 인간을 가슴으로 안아 줄 줄 아는 건강하고 착한 아가씨. 인어는, 아니 자신이 물풀이기를 원하는 물풀은 진짜 인간이다. 건강하고 착하고 예쁘다.

문득 창 밖에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귀여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곱다. 아름다운 것. 젊다는 것. 홍유정. 이런 젊은 처녀애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덧없이, 이쪽처럼 덧없이 나이를 먹다가 마침내 늙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진하게 깊게 넓게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의 푸른 수평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수평선이 있다는 사실에(실은 아주 더 많겠지만) 코허리가 쯤 해서 잠시 말문을 닫는다.

“시(詩) 같은 것은 정말 몰라요.”

외우고 있는 시 한 편이 없으면 어쩌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유리창 밖을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것도, 때 없는 카네이션을 양철통에 꽂아 놓는 것도 그냥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수영복을 입은 늘씬한 모습과 착하게 물속에서 사는 것이 곧 시니까. 그리고 보면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다는데도 그녀는 어깨가 별로 넓지 않다. 일류 선수가 못 되어서, 또

평영(平泳)이 주 종목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몸매야말로 홍유정 양의 진짜 시(詩)가 아닐까 싶다.

어떤 날은 퇴근 후에 중구 쪽 어디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한다는 애인을 만날 것이고, 얼핏 그런 취미가 있었을까 싶게 홈패션학원서 바느질을 배우기도 할 것이다. 어느 날 기분이 좀 괜찮은 날은 모처럼 친구들을 불러내 웃고 떠들며 소주도 한 병쯤 마실 것이다.

인천전문대 사회체육학과를 나온 부평 토박이 아가씨. 스물여섯이면 아가씨라는 말이 좀 어색한가. 수영 강사 5년 경력의 사회체육지도자라는 신분과 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럴까. 그런데도 이쪽의 눈에는 그냥 인어 아가씨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물미역 아가씨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늘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때가 물을 새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머리칼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맑고 초롱초롱하고 맑은 것이다. 아아, 미역 줄거리! 문득 ‘기지배야, 참 곱구나’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한다. 그건 안 된다. 대신 시를 하나 읽어 주어야지.

낮은 아코디온은 대화를 관봤습니다.

—여보세요!

〈뽀뽀다리아〉

〈마주르카〉

〈디젤엔진에 피는 들국화〉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수화기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아만 그림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아란 기록들

나비는

기중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 〈조항, ‘바다의 층계’ 전문〉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봐요! 수수께끼 같지만, 신년 새해 1월의 춤과 파랑게 언, 그러나 따듯한 감성으로 출렁일 바다, 그 바다가 아가씨에게 손짓할 테니까요. ☀





# 지금이 상투? 잡을까, 말까?

글 • 한국씨티은행 인천개인영업부 씨티골드센터 팀장 이주영 (420-5509)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사상 최대,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 지난 한해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최고, 최대’라는 단어가 많이 붙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4~5% 정도의 특판예금이라고 가입해봤자 1억 투자해서 1년 이자가 겨우 330만원에서 420만원 밖에 안 된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반면에 주식형펀드에 투자해서 1년도 안되는 기간에 30~70% 대의 수익을 보고 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2005년 한해야 말로 펀드로 돈을 가장 많이 번 한해였던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올해도 그럴까? 국내외 각 증권사별로 올해 우리나라의 주가전망을 1450~1600 정도로 보고 있다. 적립식펀드와 변액유니버설보험, 퇴직연금 등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글로벌 경기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기업실적도 호전되어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재평가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는 코스피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기대수준은 조금 낮추고,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자산관리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예금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간신히 따라가기 바쁘다’** - 은행예금의 실질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밀도는 상황에서 과거의 ‘안전 제일 주의식’ 투자로는 사실상 자산증식이 불가능하다. 본인의 자산 중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정한 투자목적에 맞는 장기투자를 하라’** - 장기투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준다. 누구나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어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누구도 매번 맞출 수는 없다. 장기적인 전망과 추세가 좋다면 너무 매매타이밍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더 바닥을 기다리다가 투자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분산투자하라’** -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상식이다. 펀드도 다같은 펀드가 아니니 꼼꼼히 따져 본인의 자산규모나 스타일에 맞추어 분산해야 된다.

**넷째 ‘적립식 투자를 통하여 평균취득단가를 낮추어라’** - 적립식의 효과인 cost-averaging 효과, 즉 평균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시마다 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요즘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적립식펀드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다섯째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을 꼼꼼히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라’** - 한번 가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재조정해야 한다. 외부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목적이나 내용에 변경할 것은 없는지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상의 자산관리의 원칙과 몇가지 포인트를 염두해 두고 새해부터는 펀드로 하는 재테크 공부를 해보자. 펀드공부를 하려면 우선 경제신문을 잘 봐야 된다. 경제신문을 보다보면 경제흐름 및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 대외경제를 보는 글로벌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고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성장주펀드, 가치주펀드, ELS, MLD, 각종 해외펀드 및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 등 펀드나 금융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1년도 안되는 투자기간에 30~70% 대의 수익을 내는 펀드투자자가 있는 반면, 코스피지수가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1조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뉴스도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도 안오르는 주식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은 자산관리의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상품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평생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자산관리사를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다. ☼



## 여보, 인정할게

‘당신 참 많이 변했어!’ 아마 결혼하고 제일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세월을 곰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 반성 겸 새해 각오 겸 한번 지난 일들을 새겨보려고 해!

당신 와이셔츠 제대로 다리지 않은 날은 대충 털어서 “터프한 남자는 너무 매끈한 것보다 웬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더 멋있어.”라며 등 툭툭 두드리며 아침 배웅 했던 것, 예쁜 그릇들은 손님접대용이라며 그릇장에 모셔두고 식탁의 반찬그릇들은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그릇들로 대충 담아놓으며 “맛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릇이 별 대수야? 많이 먹어.”라며 나 먼저 열심히 먹으면서 당신 별로 챙기지 않았던 일, 저녁 늦게 라면 끓여 달라고 했을 때 “밤에 먹는 건 독”이라며(사실은 귀찮아서) 있는 대로 투정부리고 달랑 반 그릇만 내놓았던 건 내가 끓이면서 너무 맛을 많이 본 탓이야. 자기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자기보고는 술 많이 먹는 것 자제 못한다고 홍보하면서 나는 밤늦게 군것질하고 운동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당신한테만 운동 열심히 하라고 재촉했던 것.

정말 생각해보니 반성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네. 그래도 이것은 확실한 것 같네. 내가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말이야. 올해로 20년 째 당신과 함께 한 시간이야. 새해부터는 좀 더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하길 바라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다면 남편 말에 좀 더 귀 기울일게. 새내기 때처럼.

박현주 (남구 용현동)



## 새로운 한해를 바라보며

2005년은 2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잠시 쉬 한 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공부, 시험 등등 열심히 달린 저의 휴학 생활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휴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복학하기 전에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를 느껴보고 돌아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신입생이 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전공공부에 더욱 전념할 것은 물론, 그 동안 고민을 했던 복수전공도 신청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성적표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 해에 안타깝게 떨어진 교환학생 모집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붙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조...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내년 이맘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열심히 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권민지 (서구 가좌2동)



## 사랑받고 싶어요

지난 일요일, 6살난 외손자와 대화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말았다. “유타야 누나(외사촌)는 학교에서 반장이고 달리고도, 줄넘기도 1등, 또 노래도 잘해서 상도 탔다는데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물었다. 잠시 새물새물 웃으며 생각하더니 “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두 팔을 높이 들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거침없이 한 말이었다. “야, 그거 아주 멋진걸. 역시 우리 유타야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쑥스러웠다. 어린 애가 어른들에게 경증을 올리는 대답이었다.

해마다 새해만 되면 멋진 계획들을 나열해 놓지만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원점이 된다. 나이가 들고보니 오랫동안 모두 부질없는 욕심들만 끼고 살았다는걸 깨닫게 된다.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작가 최인호 씨의 글이 생각난다. 아주 작고 소박한 각오로 새해를 맞는다면, 아니 모든 이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게 산다면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임세자 (연수구 연수1동)



##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새해 소망



여보,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네요. 작년 이맘때도 지금과 같이 새해소망을 이야기 했었지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이... 글썄, 생각해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군요. 그래도 내년은 올해 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몇 가지 적어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년에는 당신이 꼭 건강검진 받는 것이예요. 별일 아니다 싶지만 워낙 병원에 가기 싫어하니... 건강하다고 자신은 하지만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간단한 검사라도 꼭 받았으면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나의 소망입니다. 너무 착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우리 두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양치습관으로 치과에 가는 횟수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두 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구요.

내가 나에게 바라는 새해 소망은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려 사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씩이나마 나를 돌아보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이 되어서 작게는 남편회사도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월급이 밀리지 않고 잘 나왔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민경 (서구 마전동)



## 더 크게 나누며 살고 싶다



모두 힘들게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작은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다. 어렸을 적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는 여러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에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한해를 마감하며 나의 봉사가 진실된 모습이었나 반성하면서 많이 부족했던 맘에 고개가 숙여진다. 몇 년째 목요일마다 봉사자 아줌마들 3~4명이 한집에 모여 반찬 만들기를 하고 있다. 독거노인분들께 드릴 반찬을 20집에 전달해 드리는 날인데 적은 후원금으로 쪼개고 쪼개서 하는 형편이라 맛있는 고기반찬이 아니라 대부분 채소류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래도 정성스런 우리 음식이 맞출다며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면 흐뭇하고 기분 좋다. 좋은 곳에도 모시고 가고 복날이면 따로 해드리는 삼계탕이 아닌 팔팔 끓여대는 국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부터는 후원 상가와 후원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뵙고 싶다.

장혜인 (부평구 일신동)

## 새해 나의 작은 각오

지금까지 생물이 하나하나 또 모든 자연에 대해 귀하고 소중하지 몰랐다. 오늘에서야 생물이 하나 하나도 작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팽이를 키울 때는 아재만 주면 쑥쑥 크는 줄 알았다. 달팽이가 통에서 나와 사라지는 순간 가족이 없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었다. 어디에서 말라 죽지는 않았는지 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는지 신발장 아래서 웅크리고 있는 달팽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엄마께서는 상추에 달팽이를 놓고 물을 촉촉하게 뿌려 주셨다. 한참 달

팽이를 보고 있으니 꿈틀거렸다.

난 2006년 새해부터는 모든 식물과 작은 생물이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자연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박은지 (구월서초등학교)

## 모든 소망 이루길...

2005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어요. 새해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다가오는 2006년도의 떠오르는 해는 더 예쁘고 동그랗게 떠올라 모든 이의 소망과 꿈을 다 이루어주었으면 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추어서 많은 복을 받아 그 수가 현저히 줄었으면 좋겠구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이 눈부신 발전으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면 하구요.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 건강하게 행복한 출발과 함께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굿모닝인천>의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구요. 좋은 소식, 좋은 내용으로 항상 저희 인천시민 옆에 영원히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 소망 다 이루어세요.

김진희 (서구 검암동)

## 작지만 큰 약속

우리집 컴퓨터 바탕화면 아이콘 중에는 디지털 일기장이 있다. 그것은 내가 새해 첫머리에 굳게 결심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루하루의 일과를 기록해 두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지금 일기장은 ‘썰렁’ 그 자체이다. 세어보니 열흘이 채 못 된다.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내면 될 것을...’ 그래놓고 아이들에게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야단을치고 정작 야단을 맞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굳게 결심을 했다. 2006년 새 해에는 일기장을 꼭 채워 보겠다고.

김선미 (남동구 만수동)



## 한국전력공사 관할구역이 변경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이전(2005년 8월)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남구 주민들은 기존 남인천지점에서 인천지사로, 연수구는 기존 인천지사에서 남인천지점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전전을 방문하실 경우 관할사업소를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민원사항은 현행과 같이 국번없이 123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관할구역 변경시기 : 2006년 1월 1일

• 관할구역 변경내용

지역구분	현 재	변 경
남구 주민동전체 (1~8동)	한전 남인천지점	한전 인천지사 (중구 신흥동 7-236 소재)
연수구 전체	한전 인천지사	한전 남인천지점 (연수구 청학동 448-2 소재)

문의 \_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국번없이 123)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에 초대합니다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매년 1,2월에 전문상담원 100시간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으로 권위와 전통을 성실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도 수 년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뜻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기간 : 1월 12일 ~ 2월 17일(매주 목, 금, 토)

• 시간 : 목요일, 금요일 - 오후 1시 ~ 오후 7시(간식 제공)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 제공)

• 교육장소 :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

• 교육내용 : 가정폭력 관련법 및 서비스 지원체계, 유형별상담, 상담이론 및 상담기법, 성격유형(MBTI검사, 해설)과 상담, 피해자 상담, 행위자 상담,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외도 및 이혼상담, 알코올상담, 의사소통 훈련, 상담워크샵 등.

• 교육비 : 280,000원(자료집 제공)

• 특전 : 교육 수료후 본 상담소 자원상담원 활동, 본 상담소 심화교육 할인혜택

• 모집인원 : 50명

• 모집대상 : 응시자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적합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 또는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등록 : 신청서 제출(Fax, e-mail) 및 은행입금 후 전화신청(선착순 접수) 농협 176-01-078112 <사>내일을여는집

• 접수 및 문의 : 가정폭력상담소 (543-7179 Fax 545-1302  
www.homelessshot.or.kr / naeil1366@hanmail.net)

## 인하대병원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공개강좌를 매월 실시합니다.

• 일시 : 1월 31일(화) 오후 3시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주사(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미용치료

• 강사교수 : 피부과 이종록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수련부 (890-2640~2)

## 각종 조합장선거일정 안내

•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배경

2004년 12월 31일 농·수협 및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축적된 공직선거관리 경험을 각종 조합장선거에 도입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한 선거문화로 정착시키고 돈 드는 선거를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바른 선거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조합장선거일정

선 거 명	선 거 일	관할위원회명	문의처
인천축협조합장선거	2006. 1. 17	남구선거관리위원회	887-4117
검단농협조합장선거	2006. 1. 17	서구선거관리위원회	565-7661
화도농협조합장선거	2006. 1. 18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934-2172
교동농협조합장선거	2006. 1. 18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934-2172
경인북부수협조합장선거	2006. 1. 18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934-2172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c.election.go.kr)에 오시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선거공약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시면 사례금 또는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신고·제보 : 관할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425-3939)

## 다음달 글의 테마는 ‘음악’

다음달 테마는 ‘음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애창곡을 그 이유, 사연 등과 함께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께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운영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
  - － 상담내용 : 가족 · 신상 · 이혼 ·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 · 건강문 제 등
  - ▷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 (434-6436~7, 434-0182)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cheon.go.kr → 여성 상담 → 사이버상담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14:00~16:00
  -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상담 : 매주 목요일 15:00~17:00
  - ※법률 · 정신건강상담 :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 및 전화상담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신청자 모집**
  - － 대상 : 가족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정 및 가족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정
  - － 방법 : 전문상담원 방문상담, 가족치료 전문가 지정 위탁
  - － 내용 : 가족상담을 통한 가족 내 문제 해결 및 상담결과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및 심리검사, 가족치료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 (관련교육이수자) 모집 : 연중 수시**
-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문의 \_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특수과정 신입생 모집

〈최고경영자(CEO)과정〉

- **교육목표**
  - － 국제적 비전과 리더쉽을 갖춘 경영자 양성
  - － 경영분야의 새로운 기법 소개 및 경영혁신 방향 제시
  - － 전문가 및 각 특수과정 연계로 상호 네트워크 구축
- **2006년도 신입생 모집**
  - － 모집인원 : 00명
  - － 모집대상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각 분야의 지도급인사
  - － 수업연한 : 1년, 매주1회 (수요일 18:30~21:40)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 서, 본인사진(반명함판) 1매
  - －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일~ 1월 31일
  - － 합격자발표 : 2월 13일 개별통보

〈중국통상CEO과정〉

- **교육목표**
  - － 중국관련 국내 · 외 저명인사 초빙 강의
  - － 중국에 대한 통상능력 배양과 국내기업의 진출전략 구축
- **2006년도 신입생 모집**
  - － 모집인원 : 00명
  - － 모집대상 : 경영인 또는 관리자, 공무원, 각 분야의 지도급인사
  - － 수업연한 : 1년, 매주1회 (월요일 19:00~21:40)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 서, 본인사진(반명함판) 1매
  - －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일~ 1월 31일
  - － 합격자발표 : 2월 13일 개별통보
-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FAX : 770-8501)

### 겨울방학프로그램 ‘연극아 노올재!’

학산문화원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연극아!! 노올재!’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운영기간** : 1월 4주간
- **모집대상**
  - － 6세~7세 :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 － 초등학교1~3학년 : 수요일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 **모집인원** : 각 20명 내외(학부모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엄마와 함께 신청한 아이 우선임)
- **내용**
  - － 1주 : 오리엔테이션 - 연기의 이해
  - － 2주 : 연극제작 실습 - 대본만들기
  - － 3주 : 연극제작 실습 - 소품, 홍보물제작
  - － 4주 : 연극제작 실습 - 리허설, 공연, 제작발표회
- **장소** :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 홀
- **수강료** : 10,000원(1인) (크레파스, 가위 등 기본재료 지참)

문의 \_ 학산문화원 (866-3992)

###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역주민차량 통행료 감면 안내



우리 시에서는 2004년 8 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영종지역 지역주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 로 감면하기로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추가감면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영종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현행과 같이 북인천영업소 통과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 아 무료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동 지역에 새로 전입하는 주민께서는 당초의 건설교통부 감면분인 50%(1,600 원)만이 감면되어 통행료 1,700원을 지불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통행료 감면**
  - － 일반인 : 서울 → 6,700원 / 북인천 → 3,300원
  - － 지역주민 :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전입자 : 서울 → 3,500원 / 북인천 → 무료
  - 2006년 1월 1일부터 전입자 : 서울 → 3,500원 / 북 인천 → 1,700원
- **감면대상 차량 및 기준**
  - － 감면시행기간 : 2004년 8월 1일 00시~2007년 3월 31일 24시
- **감면대상** : 지역주민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실제 거주민)
  - － 중구 : 영종 · 용유 · 운서동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 미도)
  - － 옹진군 : 북도면(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 **기타사항** : 상기 내용 이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함.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2), 신공항하이웨이(주) (560-6032)

### 녹색연합 회원 모집

아이들이 곧 자연입니다. 그 감수성을 이어주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회원 모 임인 <초록동무>가 2006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5년 12월 ~ 2006년 1월
  - **대상** : 초등학생 1학년 ~ 5학년 (선착순 90명)
  - **활동기간** : 매달 둘째주 일요일 (2월 ~12월)
  - **회비** : 월 5,000원 (야외 기행시 차비와 식비 등 참가비 별도)
  - **활동내용** : 계양산 · 인천대공원 탐사, 자연학교
  - **참가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
  - **담당** : 신정은 간사 (548-6274)
-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연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 합니다. 갯벌과 바다 등 자연을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회원 모임인 <게논>이 2006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5년 12월~ 2006년 1월
  - **대상** : 초등학생 6학년 ~ 모든 청소년 (선착순 50명)
  - **활동기간** : 매달 둘째주 토요일 (2월 ~ 12월)
  - **회비** : 월 5,000원 (야외 기행시 차비와 식비 등 참가비 별도)
  - **활동 내용** : 인천 갯벌 관찰 및 조사, 자연생태 기행 및 정화활동, 여름 바다캠프 등
  - **참가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
  - **담당** : 녹색연합 이화숙 간사 (548-6274)

- 〈제2기 자연안내자 전문 과정 교육〉

• **교육기간** : 2006년 2월 ~ 7월 (6개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강의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야외 현장

• **인원** : 20명

- **참가 자격**
  - － 초급과정 수료자이거나 현재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신 분

- － 교육 후 반드시 자연안내 자원봉사 할 분

• **수강료** : 없음 (참가비 : 3만원)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제출 기한**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1월 31일

• **강의 내용(현장교육 위주)** : 40강차

• **담당** : 유종반 위원장 (548-6274, 017-282-185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incheon.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단체 네트워크〉홈페이지 운영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 네트워크〉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온라인(on-line)을 통한 시와 시민단체, 시민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off-line)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는 각종 단체의 온라인 등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ngo.incheon.go.kr

• **〈시민단체 네트워크〉구성**

- － 단체마당, 참여마당, 여론마당, 공유마당

• **홈페이지에서 단체가입 요령**

- － 공유마당 → 단체가입 → 가입신청 → 약관 동의
- － 단체가입에 입력한 내용이 단체마당 → 단체현황으로 연결, 집적됨 (단체가입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꼭 기억. 이후 글쓰기 기능에 필요)
- － 약도, 이미지, 엠블럼(emblem) 기능 적극 활용

• **홈페이지 활용**

- － 각 단체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림
- －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과 관련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으로 활용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44)

### 철학여행을 떠나요

스페이스 빔(http://www.spacebeam.net) 아카데미는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이진경 선생의 ‘노마디즘’ 스터디에 이어 철학자 이정우 선생의 ‘개념-뿌리들’을 가지고 또 다시 긴 사유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삶의 찰진함을 해명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의 많은 동행을 기다리겠습니다.

• **시간** : 격주 월요일 오후 7시 ~ 오후 9시

• **장소** : 스페이스 빔 시청각실(종합문화예술회관 앞)

- － 첫모임 : 1월 9일 오후 7시 스페이스 빔
- 상견례와 함께 스터디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텍스트 : 이정우 ‘개념-뿌리들’, 철학아카데미

문의 \_ 스페이스 빔 (420-8630, 011-9958-7059)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어머니는 올해도 어김없이 점집을 찾으셨다.

찬 바람 뽕뽕 부는 월미도 바닷가의 이동식 철학관.

한평도 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안위를 꿈꾸신다.

식구들의 '미래'에 대한 복채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 그리고 막걸리 한통을 놓고 가실 것이다.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부디 소원성취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들, 제발 운수대통하시길...

글 · 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만 사 ( 萬 事 ) 가   형 통 하 시 길



<http://www.dcake.co.kr>



# 謹賀新年



2006년 병술(丙戌)년은  
모두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보의하루는 올해도 변함없이  
가장 좋은 원료만을 엄선해  
특별한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의전화  
1544-1582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 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